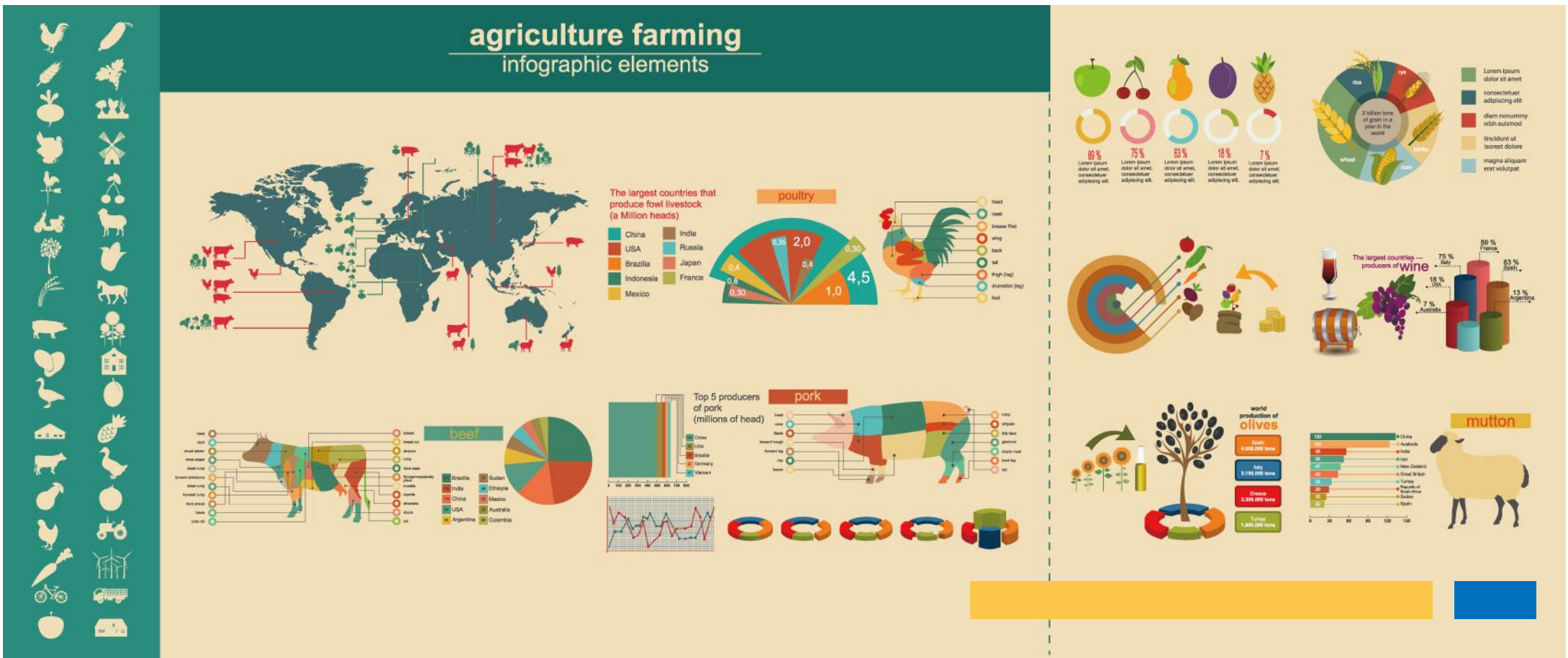




2026.9

2026년 4분기 축산업 이슈분석

축산업 수급 영향 변수 점검: 기후, 수입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제 출 문

축산업 · 기업 분석 및 전망 용역(4차)

축산물품질평가원 귀하

본 보고서를 “축산업·기업 분석 및 전망 용역(4차)” 11차보고서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FICC리서치부

연구책임자: NH투자증권 황 병 진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C/O/N/T/E/N/T/S

I. 기후: 폭염이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9
II. 수입: 수입처 다변화와 수입 확대	29

[주요 용어 정리]

구분	주요 내용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의 날의 수
열대야일수	밤 최고기온이 25℃ 이상의 날의 수
수태율	교배나 인공수정을 시행한 가축 중에서 실제로 임신(수태)에 성공한 개체의 비율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	기온과 상대습도를 결합해 가축이 체감하는 고온 스트레스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
열중성대 영역	온혈동물이 덥거나 춥다고 느끼지 않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쾌적한 온도 구간
코티졸(Cortisol)	외부 스트레스(더위, 추위, 이동, 질병 등)에 대응해 에너지를 공급
알도스테론(Aldosterone)	체내 수분과 전해질(나트륨, 칼륨)의 평형을 조절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물류, 인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해 만든 시장
수입 쿼터	정부가 특정 상품의 수입량이나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 그 한도 안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보호무역정책
B2C	Business to Consumer. 기업이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
B2B	Business to Business. 기업이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델(기업간 거래)

[기후: 폭염이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여름철 기온이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기온 상승이 심화되고 있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 53년간 국내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매 10년당 $+0.28^{\circ}\text{C}$ 상승 추세가 뚜렷하다. 기온 상승에만 국한되지 않고 폭염, 열대야와 같은 극한 현상의 발생 빈도, 시기, 강도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전국 폭염일수는 20일을 상회하며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폭염 시작일은 빨라졌고, 종료일은 늦춰지면서 무더위가 길어지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축 피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고온 환경 지속은 생산성 감소와 함께 최악의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8월 7일 기준 폭염으로 약 100만 마리의 가축 폐사가 있었다. 땀샘 발달이 부족한 돼지 및 가금류가 한·육우 대비 고온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폭염에 따라 가축 폐사가 일부 발생했으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와 가금류의 경우 밀집 사육 지역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사육 비중이 큰 호남권(육계), 경기·충남권(양돈·산란계), 영남 내륙(산란계·비육돈) 등의 폭염 장기화는 축산물 수급 및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가축이 체감하는 고온 스트레스 정도를 수치화한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THI)를 예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종별로 폭염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를 보면 8월 기준으로 최고치가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수 레벨도 상승하고 고위험 일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정도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여름철 폭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고온기에는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공급함과 동시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종별로 다소 차이는 존재하나, 급여 횟수 증가를 통한 섭취량 유지, 아침/저녁으로 사료 급여, 깨끗한 물 제공, 충분한 수분 공급 등이 주요 대응 요령이다. 정부의 주요 대응책도 긴급급수 및 현장 수요 물품(고온스트레스완화제, 열차단도포제, 냉방장치 등) 지원 등이다.

[수입: 수입처 다변화와 수입 확대]

국내 축산물 수입은 소고기의 경우 호주와 미국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닭고기는 브라질에서 대부분 수입된다. 반면, 돼지고기는 북미, 유럽, 남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이 되고 있다. 최근 수입처가 다변화되고 수입량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영향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소고기의 경우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허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수준의 사육 두수를 보유하고 전 세계 소고기 수출량 1위를 차지하는 축산 강국이다. 그러나 최근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 쿼터 부과, EU의 환경 규제 강화, 미국의 관세 압박 등이 중첩되면서 브라질 소고기 수출 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과의 FTA 체결 및 시장 개방은 브라질 축산업계에 유의미한 돌파구가 될 수 있어 현지의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국내 축산업계는 브라질산 소고기가 수입될 경우 시장 경쟁 심화로 한우 소비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미국 및 호주 등 주요 기수입국 대비 지리적 거리가 멀고 해상운송 소요 기간이 길어, 유통 과정의 재고 부담과 변질 위험을 감안할 때 냉장육보다는 냉동 원료육 중심의 수입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목초 방목 중심의 사육 방식과 전통 슈하스코용 부위 특성상 피하지방 중심의 육질을 보여 마블링 중심의 국내 냉장육 선호와는 수요층이 상이하다. 일부 프리미엄 와규 품종의 항공운송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높은 항공운임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한계로 한우 농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저가 냉동 원료육의 대량 유입은 육가공품 시장 등에서 국산 돈육을 일부 대체할 수 있어, 한우보다는 한돈 농가와와의 경합도가 일정 수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스페인산 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025년 스페인에서의 ASF 발생으로 필리핀·일본 등이 수입을 제한하면서 수입이 가능한 한국에 스페인산 돼지고기 공급이 많아졌다. 다만, 최근 스페인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독일 및 네덜란드 등에서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 내부적으로 돼지고기 공급량이 많아 수입량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역시 유럽산 돼지고기의 한국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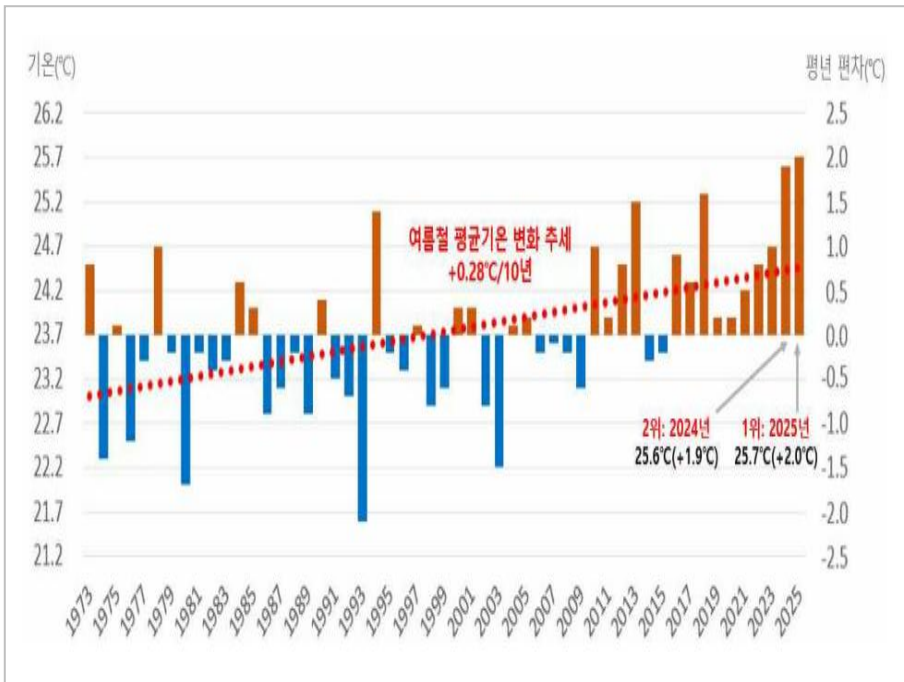
축산업 수급 영향 변수 점검: 기후, 수입

I. 기후: 폭염이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여름철 기온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기온 상승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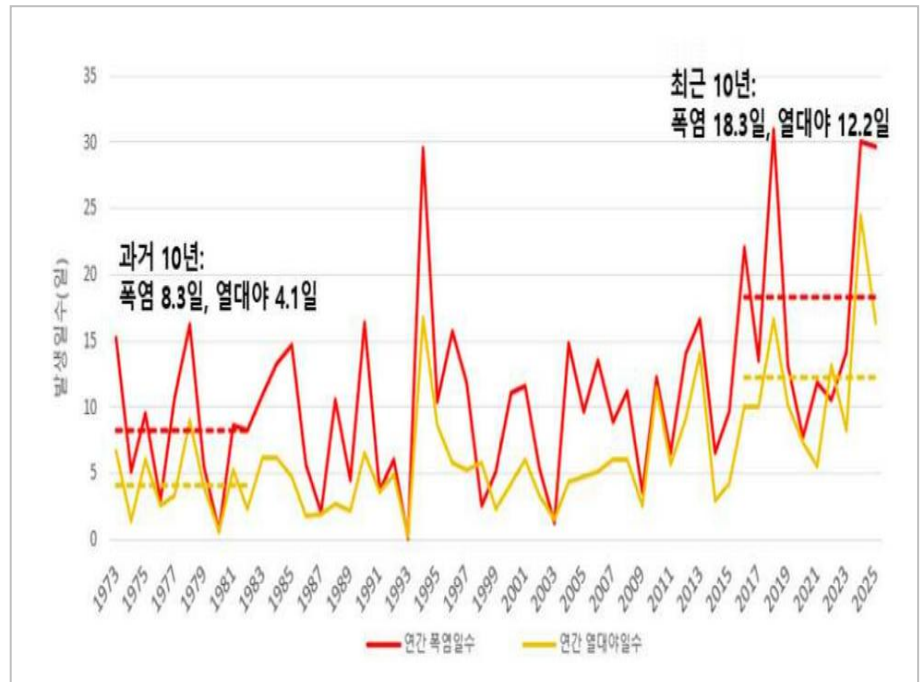
-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 53년(1973~2025년)간 국내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매 10년당 $+0.28^{\circ}\text{C}$ 상승 추세 뚜렷
- 기온 상승에만 국한되지 않고 폭염, 열대야와 같은 극한 현상의 발생 빈도, 시기, 강도 등에 영향
- 연간 전국 폭염 및 열대야일수는 각각 10년당 $+1.8$ 일, $+1.6$ 일로 증가 추세

연도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 및 편차



자료: 기상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도별 연간 전국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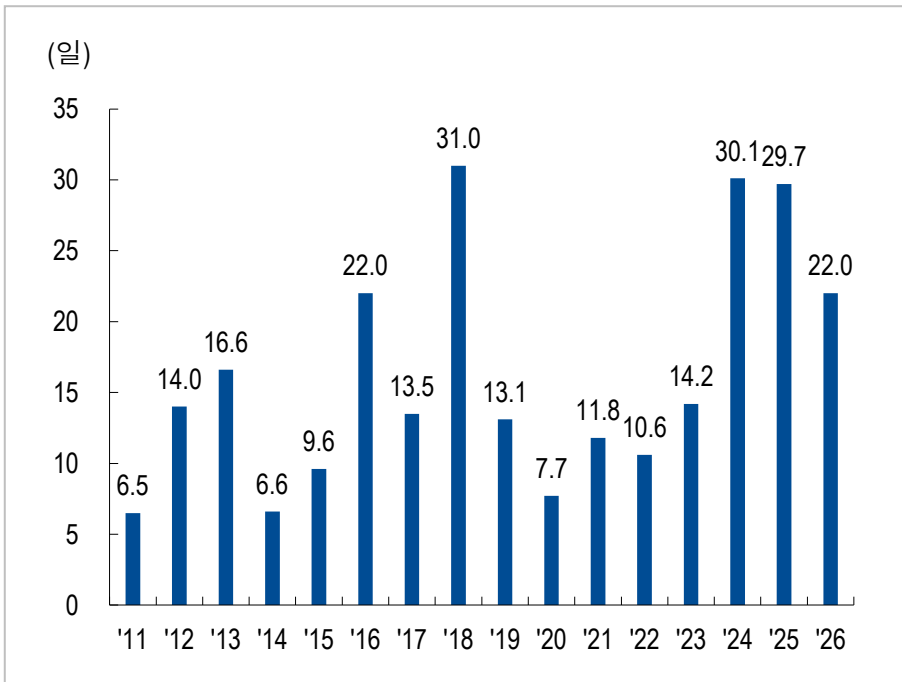


자료: 기상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6년 8월까지 전국 폭염일수 20일 상회하며 과거 대비 높은 수준 기록

- 8월까지 전국 폭염일수가 20일을 넘기며 무더위 지속. 열대야일수도 지난해 연간 일수를 상회하며 밤더위도 심한 모습
- 기상청은 9월 초까지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올해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

전국 폭염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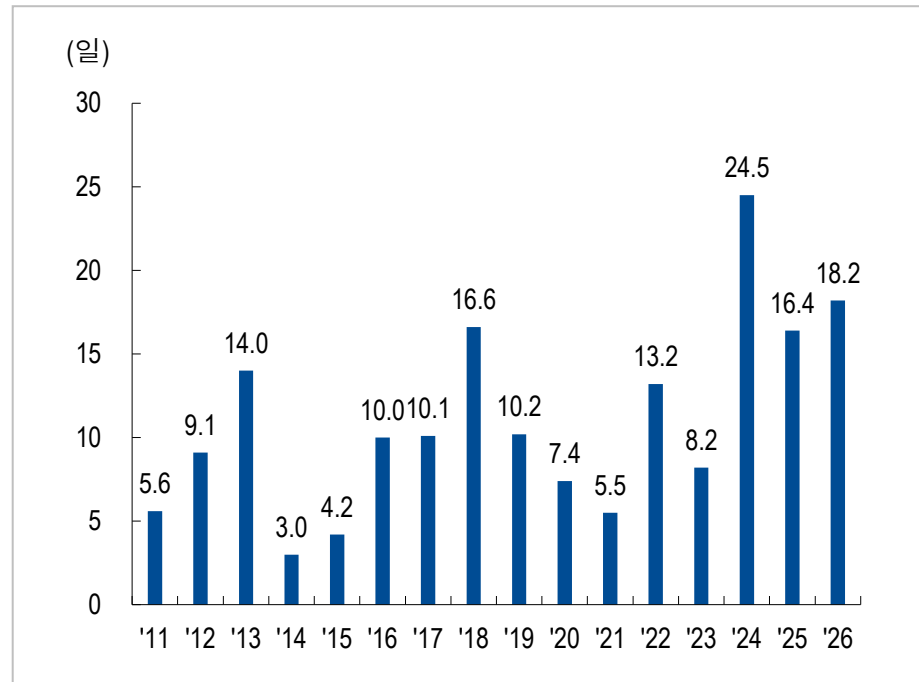


주1: '26은 8월말까지 합산 기준

주2: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의 날의 수를 의미

자료: 기상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국 열대야일수 추이



주1: '26은 8월말까지 합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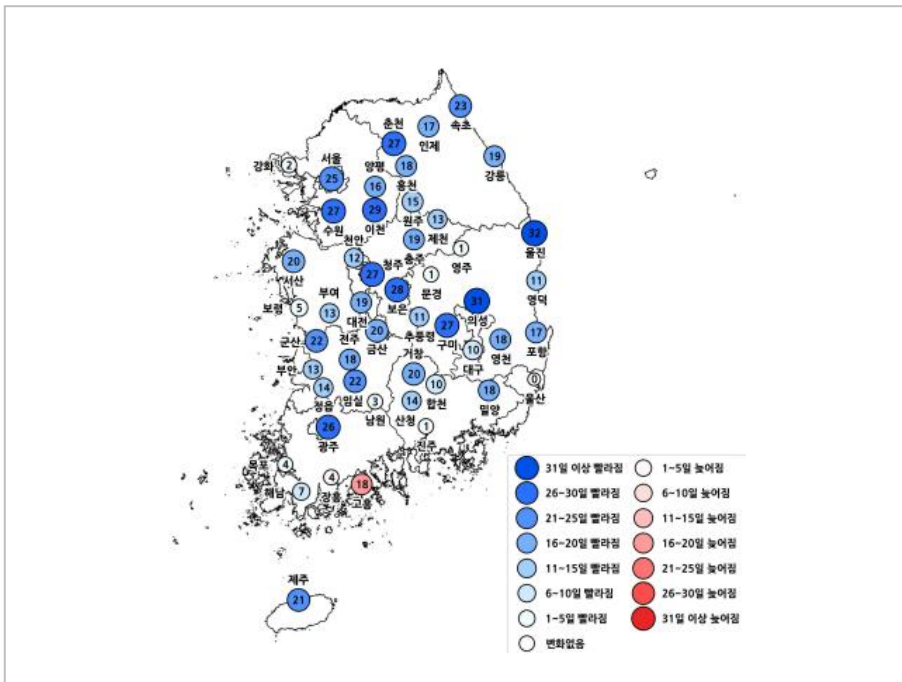
주2: 열대야일수는 밤 최고기온이 25℃ 이상의 날의 수를 의미

자료: 기상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폭염 시작일은 빨라졌고, 종료일은 늦춰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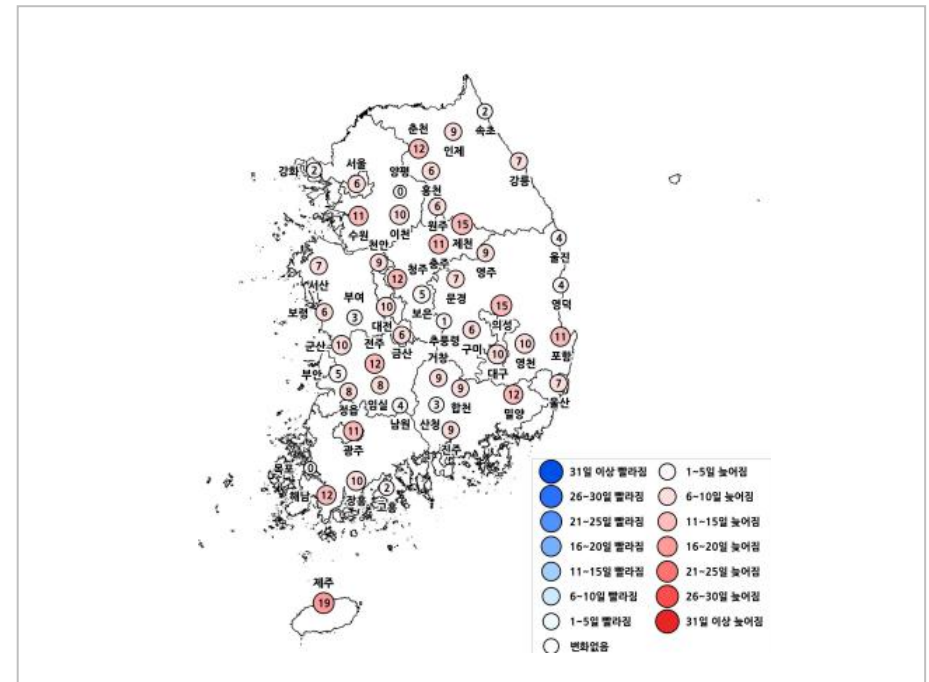
-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에 폭염 시작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30일 가량 빨라짐
- 과거 10년에는 강릉과 일부 경상 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7월에 폭염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10년에는 6월 상~중순에 동쪽지역을 시작으로 6월 하순에 해안 지역을 제외한 서쪽지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발생하기 시작
- 종료일은 최근 10년에는 8월 중~하순경에 폭염이 종료되며 10일 안팎으로 늦어진 경향

폭염 최근 10년-과거 10년 시작일 차이



주: 파란색은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에 빨라짐, 빨간색은 늦어짐을 의미
자료: 기상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폭염 최근 10년-과거 10년 종료일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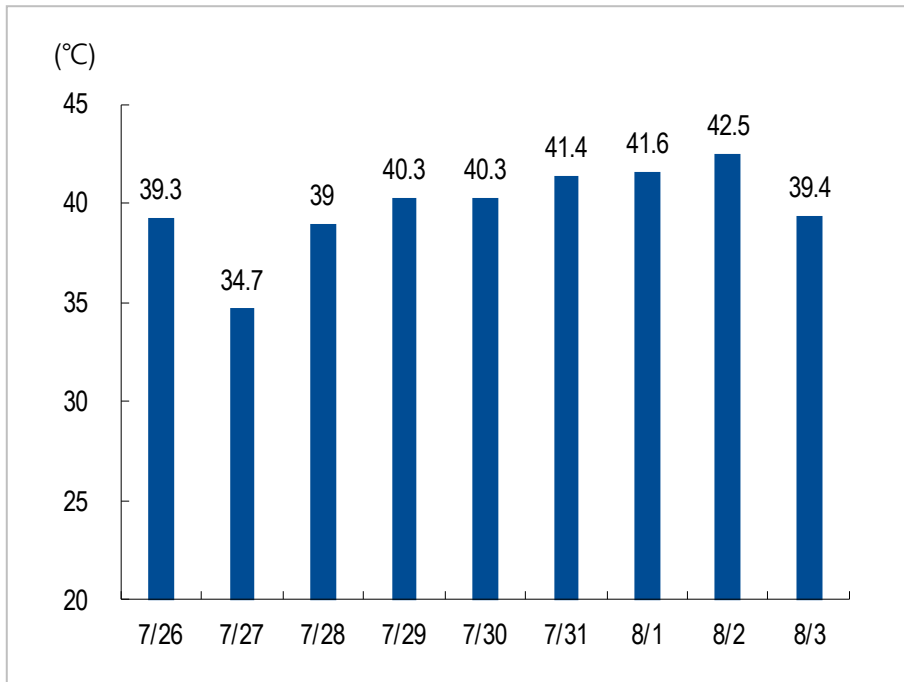


주: 파란색은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에 빨라짐, 빨간색은 늦어짐을 의미
자료: 기상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겹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열돔 형성

-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폭염 발생
- 8월 하순에도 여전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 머물며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해수면 온도 상승도 열대야가 좀 더 늦게까지 발생하는 데 영향
- 경남 양산의 경우 올해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으며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

경남 양산 2026년 일별 최고기온 추이



자료: 기상청,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경남 양산 '극한 폭염'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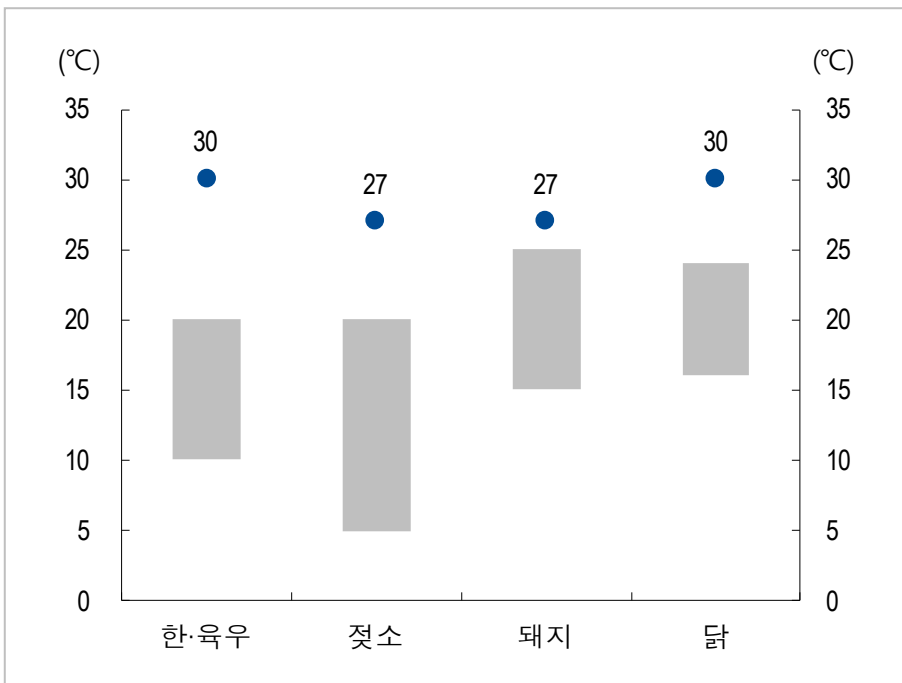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고온 환경 지속은 생산성 감소와 함께 최악의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음

- 고온 환경이 지속되면 사료 섭취량이 줄고 생산성이 감소.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량 감소는 물론 번식 수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상황이 악화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폐사 위험까지 높아짐
- 땀샘 발달이 부족한 돼지 및 가금류가 한·육우 대비 고온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

가축사육에 알맞은 온도와 고온에 의한 가축 피해 시작온도



주1: 박스는 가축 사육에 알맞은 온도를 의미

주2: 점은 고온피해가 시작되는 온도를 의미

자료: 농촌진흥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고온에 의한 가축 피해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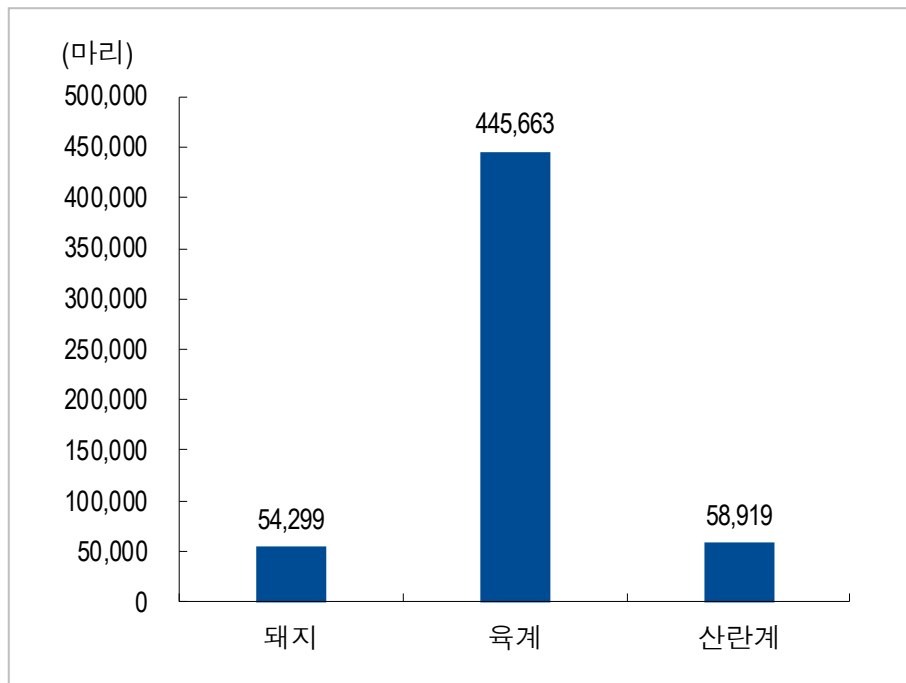


자료: 농촌진흥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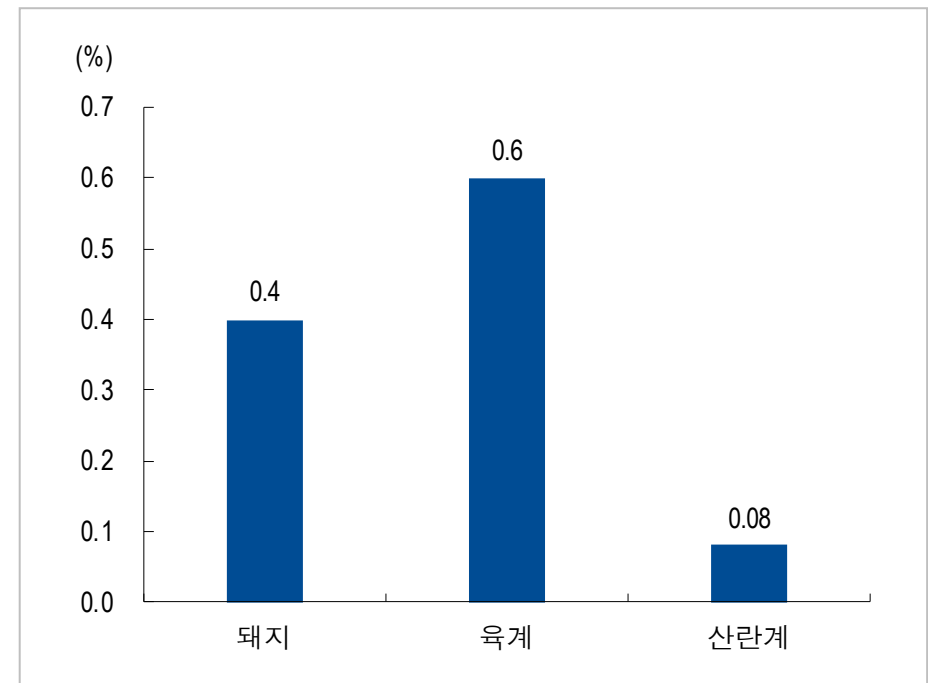
-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축 피해 우려 확대. 8월 7일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약 998,533마리
- 총 사육마릿수 대비 비중은 낮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나, 폭염 지속 여부가 중요
- 폭염에 따른 출하 지연 등은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폭염의 장기화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2026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현황



주: 2026년 8월 7일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총 사육마릿수 대비 폐사 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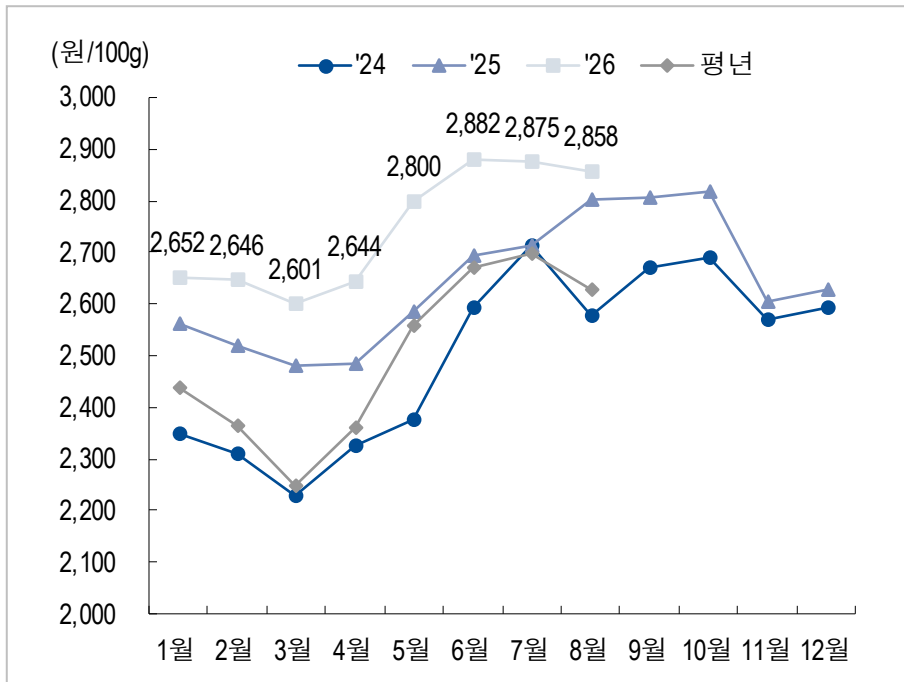


주: 2026년 8월 7일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돼지고기 및 육계 소비자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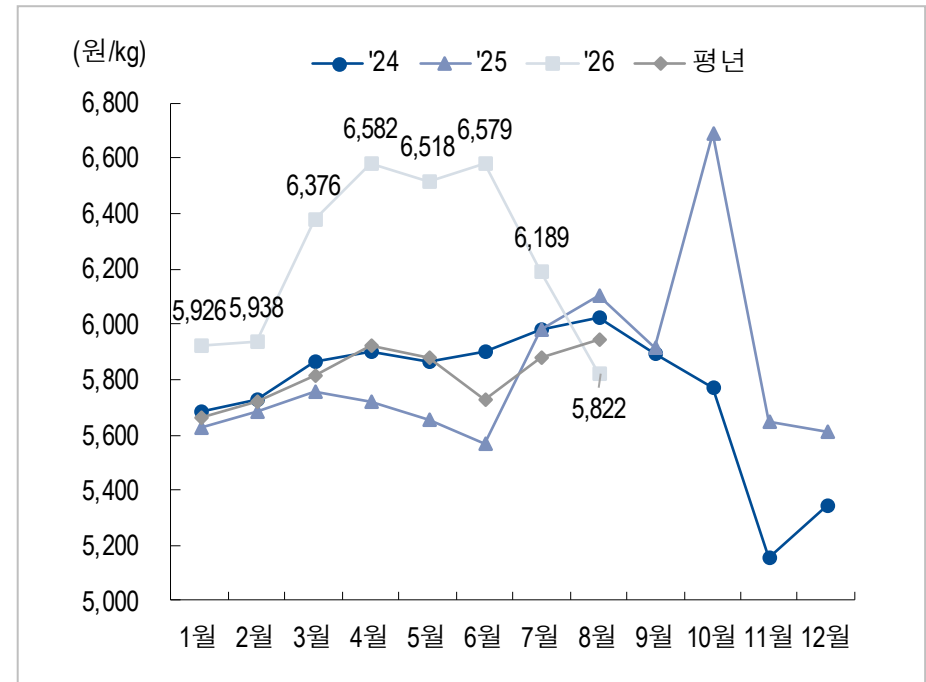
- 2026년 들어 국내산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높은 수준 지속되고 있으나, 6월 이후 소폭 하락
- 6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육계 소비자가격은 7월과 8월 크게 하락했고, 8월 기준으로는 전년 및 평년 수준을 하회
- 폭염에 따른 폐사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낮고, 전년 대비 사육 규모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의 영향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
-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물량 보충과 계란 가격 상승에 따른 입식 확대 영향 등으로 생산량 증가

삼겹살 소비자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육계 소비자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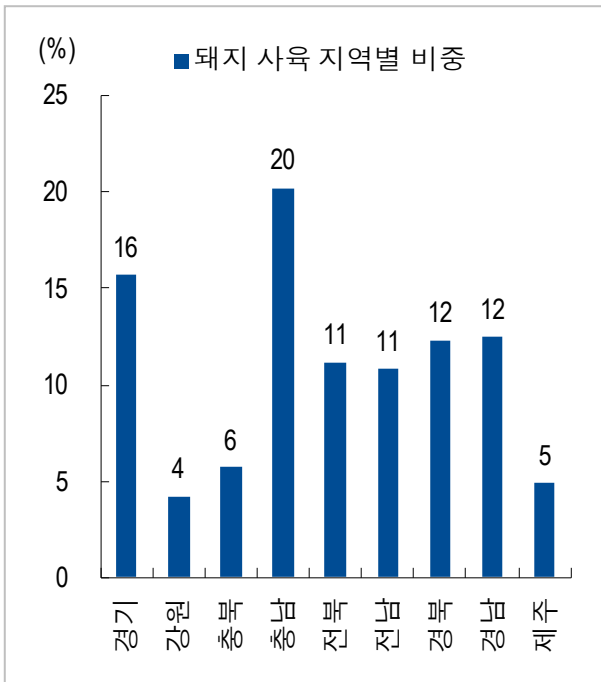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밀집 사육 지역이 상이해 지역별 기온에 따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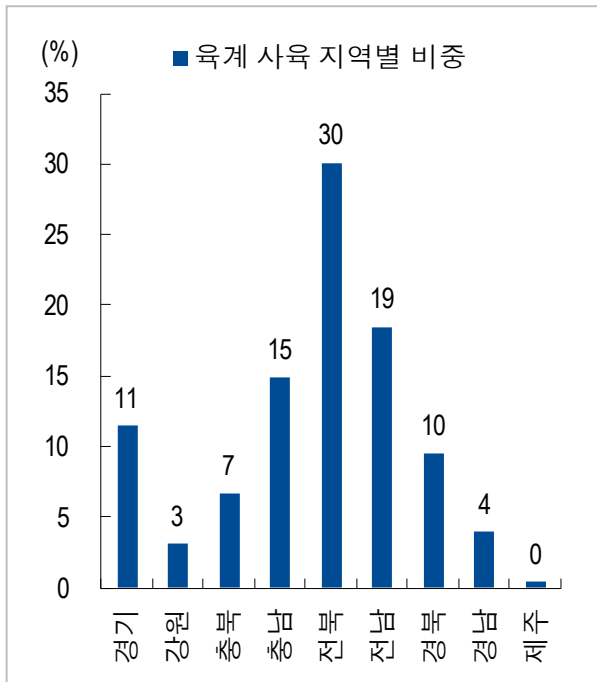
- 고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와 가금류의 경우 밀집 사육 지역이 다소 상이해 지역별 최고기온, 열대야 일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호남권(육계), 경기·충남권(양돈·산란계), 영남 내륙(산란계·비육돈)에서의 폭염 장기화는 축산물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돼지 사육 지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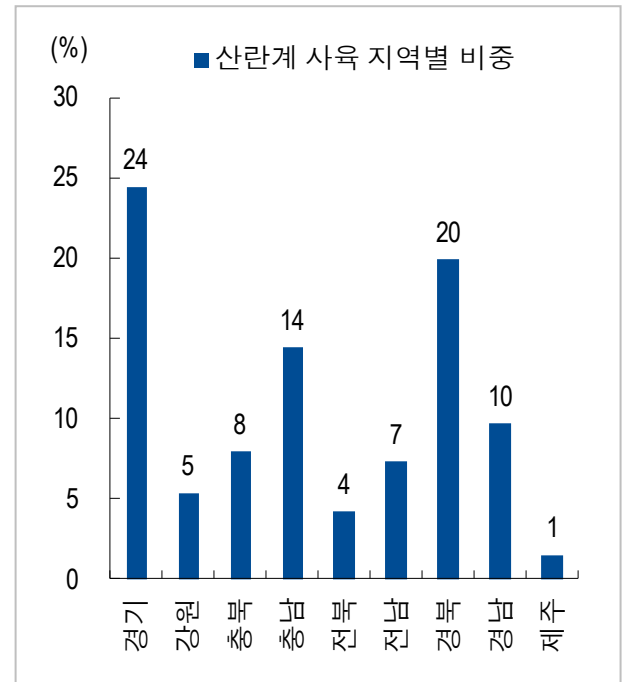
주: 2026년 2분기 기준
자료: KOSI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육계 사육 지역별 비중



자료: KOSI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산란계 사육 지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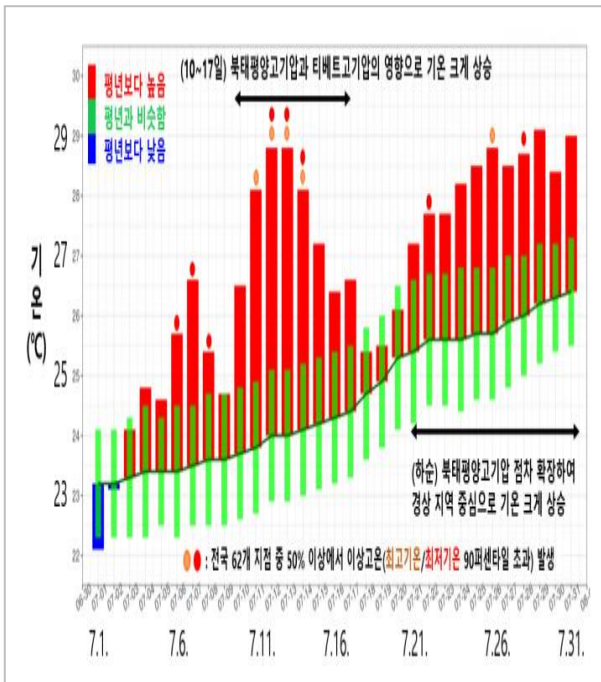


자료: KOSI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7월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높은 가운데, 지역별로 차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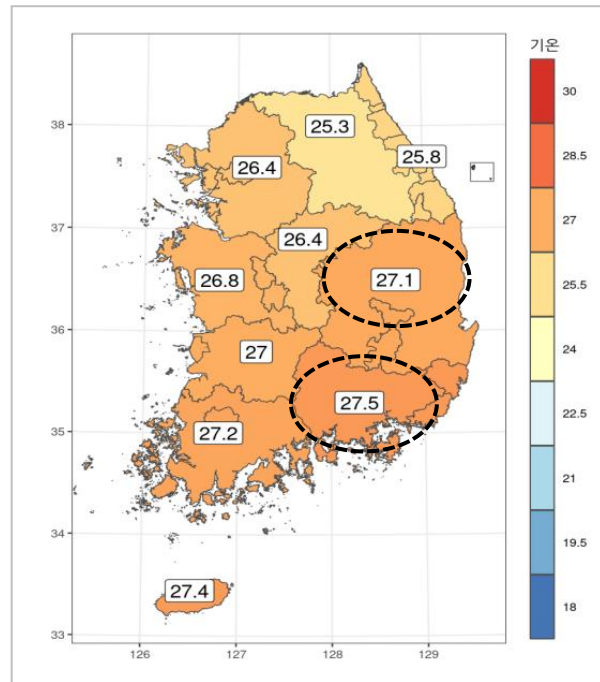
-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6.8℃(역대 3위)로 평년(24.6℃)보다 2.2℃ 높았으나,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작년(27.1℃)보다는 0.3℃ 낮았음
- 지역별로는 경상 지역의 기온이 작년보다 높았고,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온이 작년보다 낮은 모습
-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부터 확장하며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빠르게 상승

7월 일별 전국 평균기온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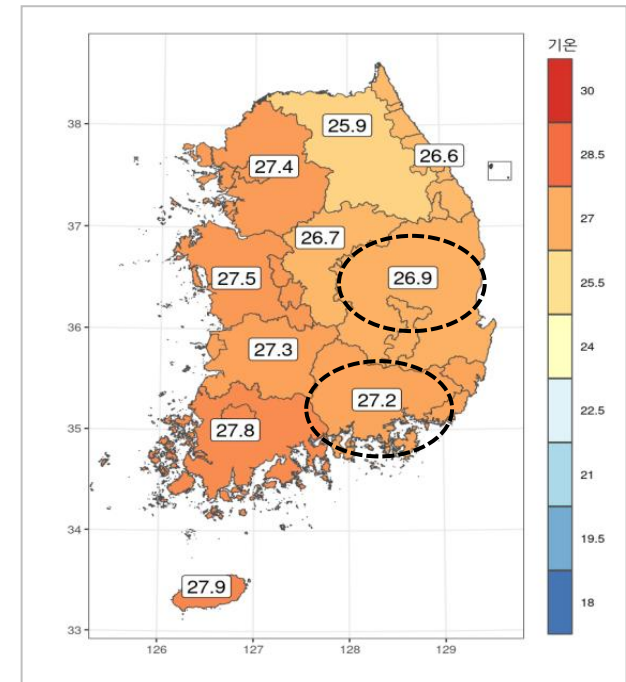
자료: 기상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6년 7월 평균기온(℃)



자료: 기상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5년 7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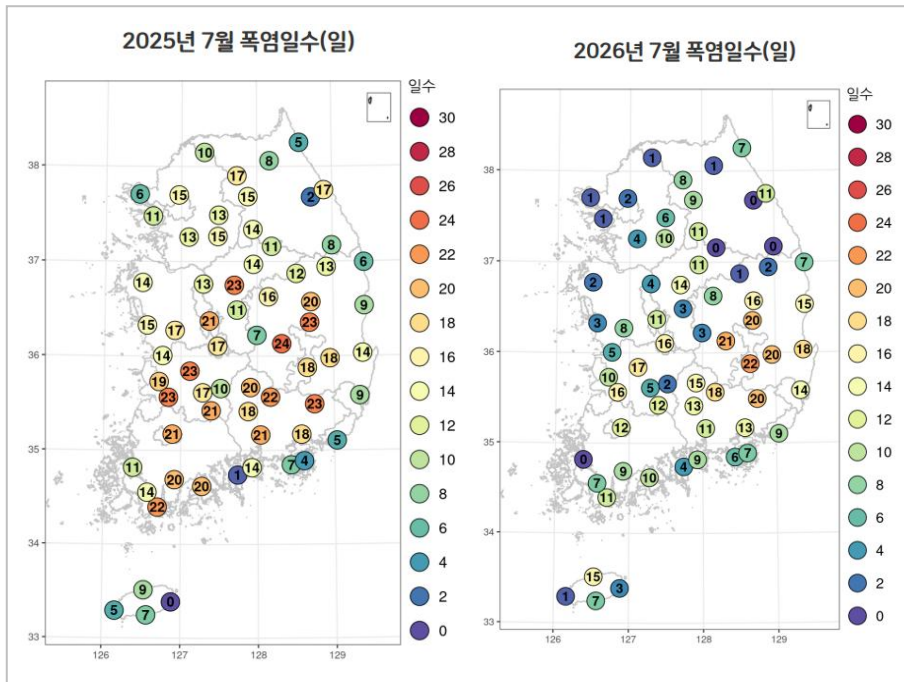


자료: 기상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폭염일수는 경상 지역 중심 15일 이상 발생, 중부 및 전라 지역은 전년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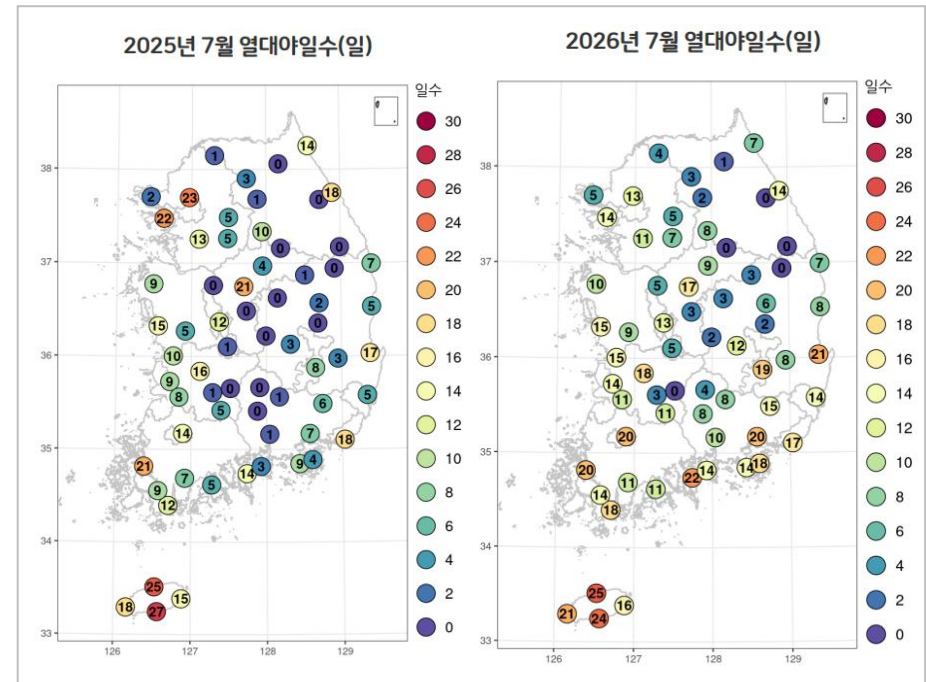
- 7월 전국 폭염일수는 8.9일(5위)로 평년(4.1일)보다 4.8일 많았고, 열대야일수는 9.7일로 평년(2.8일) 대비 3.5배로 역대 가장 많았던 2024년(8.8일)보다 많았음
- 7월 폭염일수는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15일 이상 발생, 중부지방과 전라 지역에서는 대체로 폭염일수가 작년보다 적었음
- 7월 열대야일수는 서쪽지역, 남해안, 제주, 대도시를 중심으로 10일 이상 발생

2025년 7월 vs 2026년 7월 폭염일수(일)



자료: 기상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5년 7월 vs 2026년 7월 열대야일수(일)



자료: 기상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 예보를 제공

- 기온과 상대습도를 결합해 가축이 체감하는 고온 스트레스 정도를 수치화한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THI, Temperature Humidity Index)를 예보
-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 단계는 양호, 주의, 경고, 위험, 위급 5단계로 구분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 단계별 상태

구분	단계별 상태
양호	가축 사육을 위한 적정 환경
주의	약간의 스트레스
경고	- 사료섭취량 및 체중 감소 - 호흡수 및 체온 상승
위험	- 사료섭취량 20% 이상 및 극심한 체중 감소 - 다호흡 발생, 호흡량 및 체온 증가로 인한 체내 호르몬 변화
위급	폐사 발생

자료: 농업·농촌 기후 정보시스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 단계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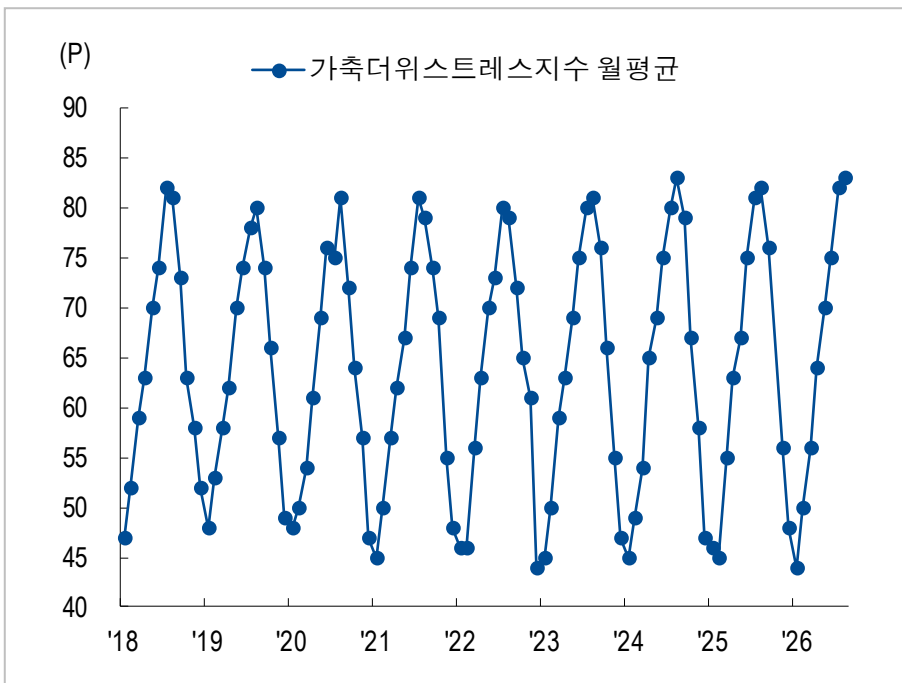
구분	한우/젖소	돼지	가금
양호	72 미만	64 미만	63 미만
주의	72~78	64~73	63~73
경고	79~89	74~83	74~80
위험	90~99	84~94	81~92
위급	99 이상	94 이상	92 이상

자료: 농업·농촌 기후 정보시스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여름철 월평균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 상승 및 고위험 일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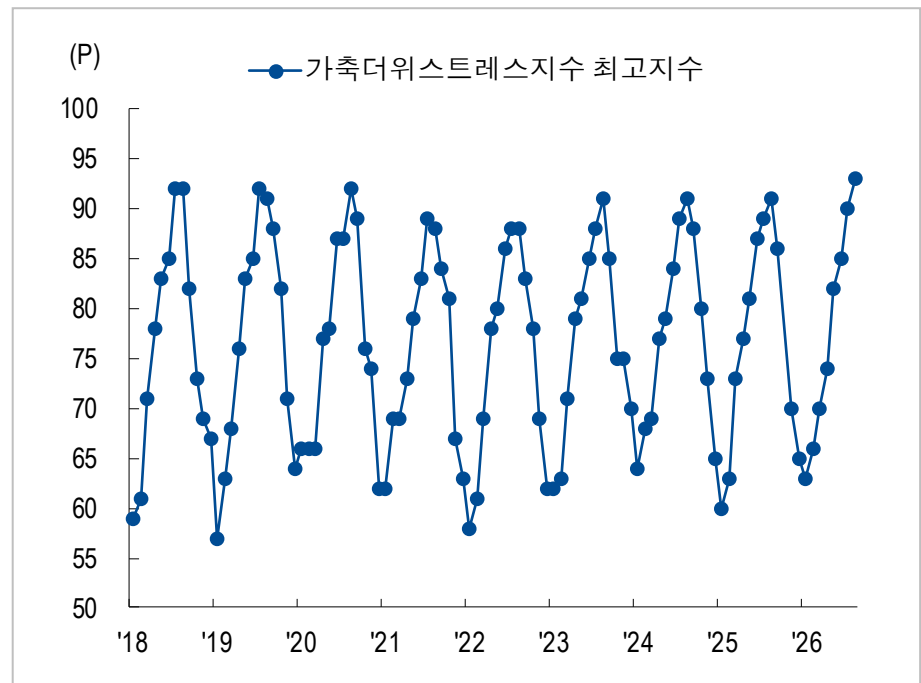
- 여름철 평균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면서 월평균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80을 상회
- 최고지수의 경우에도 7월에 이어 8월에도 90을 상회. 2026년 8월 기준 월평균 수치와 최고지수 모두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 월평균 추이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 최고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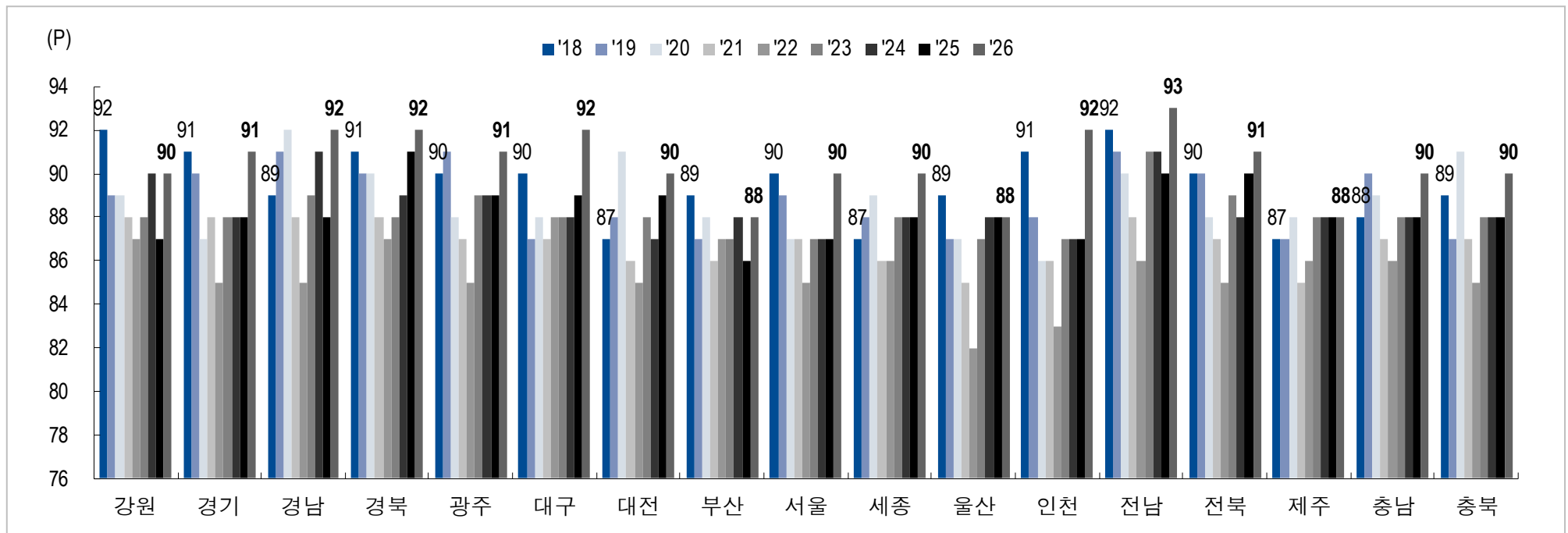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8월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 최고치는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

- 강원, 경기, 부산, 서울, 울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8월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 최고치는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
- 최저 기온과 야간 습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낮 동안 축적된 체열을 밤사이에 방출하지 못해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현상이 뚜렷

지역별 매년 8월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 최고지수 현황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폭염 속 가축건강 대응 요령: ①한우, 젖소

- 고온기에는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공급함과 동시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
- 한우: 소의 위 가운데 하나인 '반추위'에서 미생물에 의해 사료가 발효되며 열이 발생.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
- 젖소: 체온이 상승하면 사료 섭취량이 줄고 유량이 감소하며 대사성 질병에 걸릴 위험 확대. 사료는 소량씩 자주 급여하면 사료 섭취량 감소를 줄일 수 있음

폭염 속 가축건강 축종별 대응 요령: 한우

한우

'발효열'까지 발생한다고?

소의 위 가운데 하나인 '반추위'에서
미생물에 의해 사료가 발효되면서 열이 발생해요!

Point

이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기!

- ☒ 급여 횟수를 늘려 섭취량 유지시키기
- ☒ 사료는 아침/저녁으로 나누어 급여하기
- ☒ 풀사료는 5cm 이하로 잘라 소화 부담 줄여주기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폭염 속 가축건강 축종별 대응 요령: 젖소

젖소

우유 생산이 점점 힘들어요

젖소는 체온이 상승하면
사료 섭취량과 유량이 감소하며,
대사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해요!

Point

바닥은 부드럽고 건조하게 유지하며, 축사 청결 신경쓰기!

- ☒ 물은 하루에 150~200L 정도의 깨끗한 물 제공하기
- ☒ 사료는 소량씩 자주 급여하기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폭염 속 가축건강 대응 요령: ②돼지, 가금류

- 돼지: 같은 양의 사료라도 급여 횟수를 나누어 제공하면, 섭취량을 10~15%까지 늘릴 수 있음. 사료조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
- 닭·오리: 몸 전체가 깃털로 덮여 있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고온에 매우 민감. 사육 밀도를 10~20% 줄이면 체열로 인한 온도 상승을 완화할 수 있어 고온 스트레스 예방에 도움

폭염 속 가축건강 축종별 대응 요령: 돼지

돼지

열을 식히는게 어려워요

돼지는 땀샘이 없고, 체내 지방층이 두꺼워 대사열을 몸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아요!

Point
사료조는 청결하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기!

☑ 같은 양의 사료라도 급여 횟수를 나누어 제공하면?
→ 섭취량을 10~15%까지 늘릴 수 있어요!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폭염 속 가축건강 축종별 대응 요령: 닭·오리

닭·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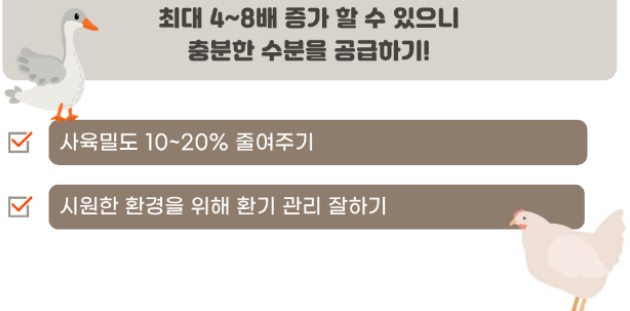
고온에서 특히 더 민감해요

몸 전체가 깃털로 덮여 있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고온에 상당히 취약해요!

Point
이때, 가금류의 음수량은 평소보다 최대 4~8배 증가 할 수 있으니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기!

☑ 사육밀도 10~20% 줄여주기

☑ 시원한 환경을 위해 환기 관리 잘하기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고온 환경에서 비육우의 생리변화와 고온 환경 비육우의 사료급여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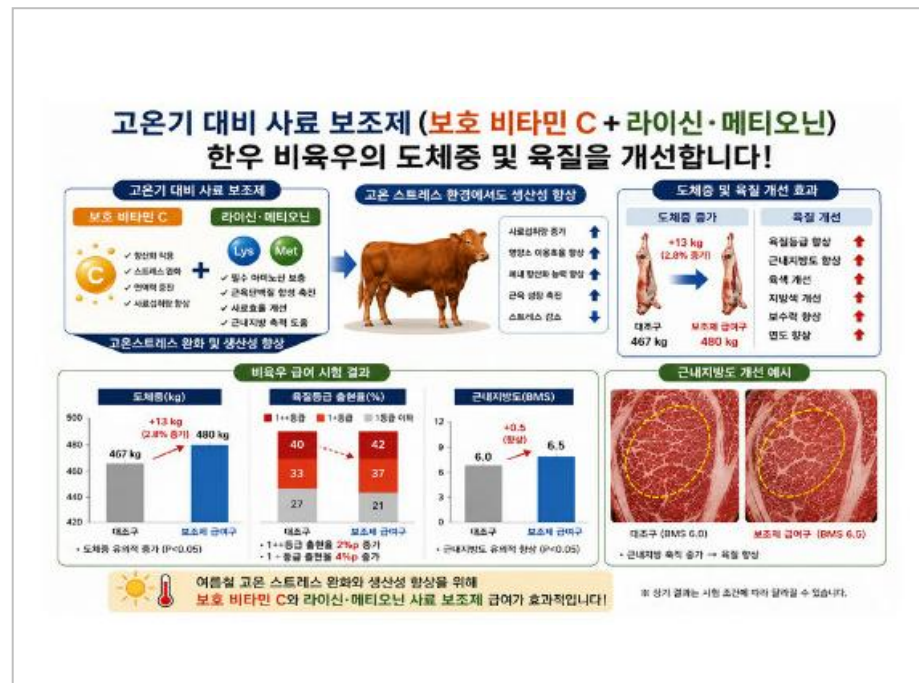
- 한우를 비롯한 육용우의 사육적온은 송아지 13~25℃, 육성우 및 번식우 4~20℃, 비육우는 10~20℃로 송아지와 비육우가 고온 스트레스가 비교적 큰 편
- 비육우는 근육 성장과 근내지방 축적을 통해 고급육을 생산하는 단계에 있어 고온스트레스에 따른 생산성 저하 영향이 큼
- 고온기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자료(첨가제) 활용 중요. 신선한 사료 급여를 위해 사료는 10일 이내 급여할 만큼만 구입하고 사료조 청소를 자주 실시

고온 환경이 한우에 미치는 영향

구분	주요 연구결과
한우	• 외기온도가 “열중성대 영역(Thermoneutral zone)”(5~20℃)을 벗어나면 건물 섭취량에 영향을 줌 • 20℃ 이상 외기온도가 증가하면 사료섭취량 감소
	• 18℃에서 32℃로 변화되면 호흡수가 32 → 94회/분 증가 • 체온이 38.6℃ → 39.4℃로 증가
	• 사육환경(온도) 변화에 따른 체내 호르몬 변화 • 20 → 40℃: 코티졸(Cortisol) 농도 3배까지 증가, 알도스테론(Aldosterone) 농도 40% 증가 • 고온 환경에서 인슐린(Insulin)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25℃에서 30℃ 이상으로 증가하면 물 섭취량 증가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고온기 대비 사료보조제 효과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고온기 젖소 사양과 우사관리

- 젖소가 정상적인 대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온도영역은 성우의 경우 4~25℃로 고온보다는 저온에 대한 적응력이 높음
- 온도가 27℃ 이상이 되면 젖소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료섭취량이 감소. 32.2℃ 이상이 되면 우유 생산량이 3~20% 급감
- 축사 내 송풍팬 가동, 안개분무, 차광막 설치, 지붕 위에 관수 실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정비

착유우의 온도별 사료섭취량, 산유량 및 음수량 변화

외기온도 (℃)	건물섭취량(kg)/두	산유량(kg)/두	음수량(kg)/두
20	18.2	27	68
25	17.7	25	74
30	16.9	23	79
35	16.7	18	120
40	10.2	12	106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착유우의 환경온도별 사료섭취량, 산유량 및 음수량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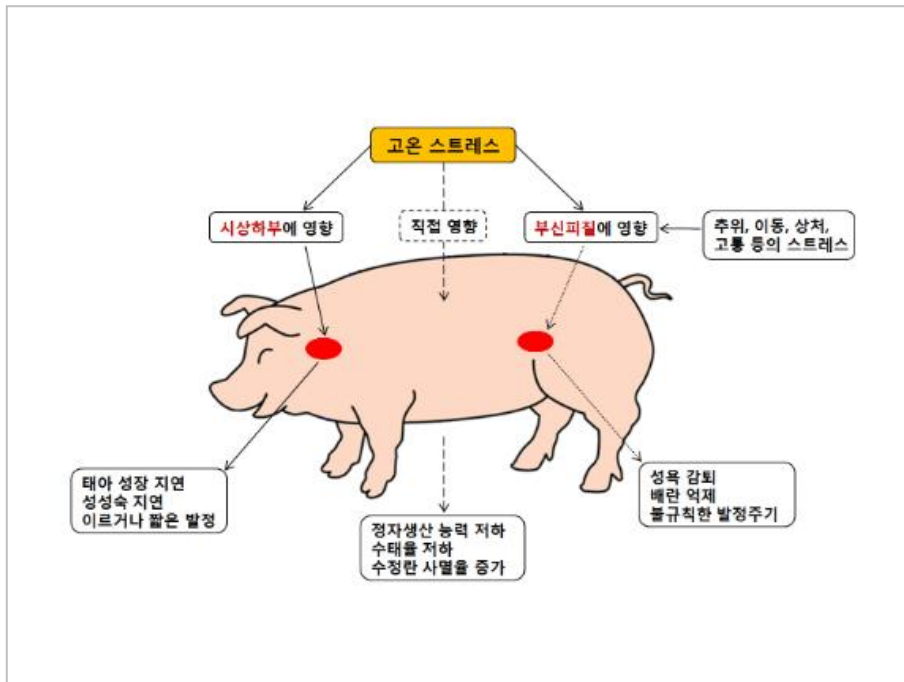
환경온도 (℃)	건물요구량 (kg/두)	건물섭취량 (kg/두)	산유량 (kg/두)	음수량 (kg/두)
-20	21.3	20.4	20	51
-10	19.8	19.8	25	58
0	18.8	18.8	27	64
10	18.2	18.2	27	67
20	18.2	18.2	27	68
25	18.4	17.7	25	74
30	18.9	16.9	23	79
35	19.4	16.7	18	120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고온기 돼지의 생리적 특징 변화와 고온기 돼지 사양관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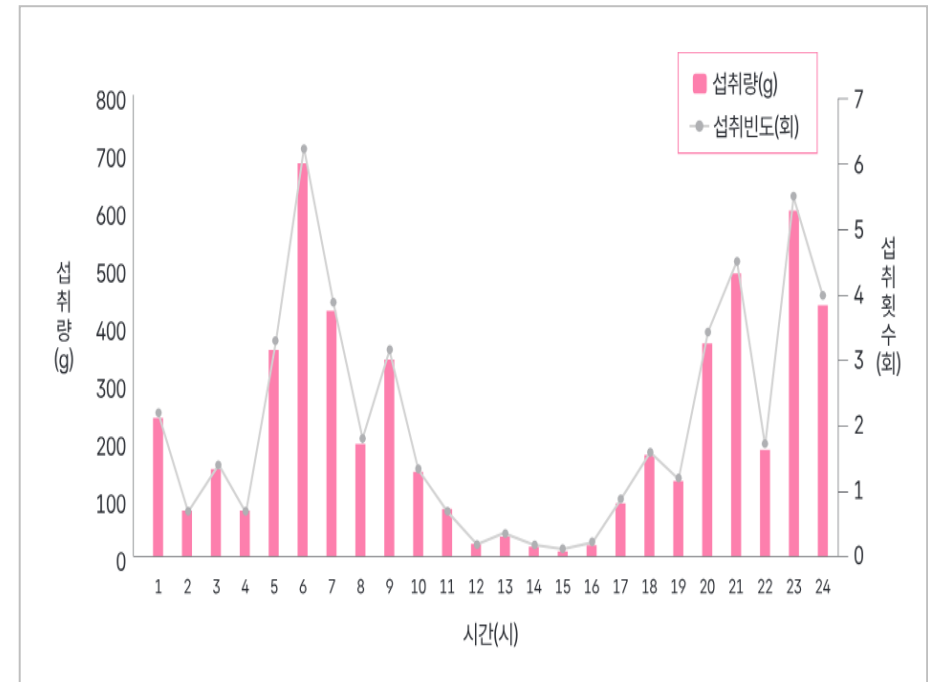
- 돼지는 땀샘이 거의 발달하지 않고, 지방층이 두꺼워 체내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더욱 취약
- 고온기에는 포유모돈, 종부 전후 모돈, 수태지를 우선 관리가 필요하며 사료섭취량·음수량·번식성적 변화를 매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포유모돈은 새벽과 야간 급여 비중을 높이고, 사료 급여 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지 확인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돼지의 번식생리적 변화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여름철 포유모돈 시간대별 사료 섭취 빈도 및 사료섭취량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고온이 닭에 미치는 영향과 사양관리 대책

- 닭은 높은 대사율과 체온의 변화가 많은 온혈동물로 다른 가축에 비해 체온이 높으며, 몸 전체가 깃털로 쌓여 있고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려워 고온에 특히 취약
- 고온이 계속되면 체내의 영양, 호르몬 등의 균형 파괴, 비타민 합성능력 저하, 탈수로 인한 혈액 내 전해질 불균형 발생
- 사료섭취량 증대를 위해 서늘한 새벽과 저녁에 사료를 섭취하도록 사료 급여시간대를 조정. 신선하고 차가운 물을 충분히 공급

환경온도와 사료섭취량 및 음수량의 관계

환경온도 (℃)	사료 섭취량(g)	음수량 (ml)	음수량/ 사료 섭취량	배분량 (g)	계분내 수분량 (g)	계분의 수분함량 (%)
10.0	120	193	1.6	176	131	74.4
15.6	110	199	1.8	166	125	75.3
21.1	100	201	2.0	158	118	74.7
26.7	90	254	2.8	143	109	76.2
32.2	80	394	4.9	127	99	78.0
37.8	70	591	8.4	109	87	79.8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환경온도와 산란능력

환경온도 (℃)	산란율(%)	난중(g)	1일 1수당 산란량(g)
12	84.5	56.8	48.0
16	88.0	56.3	49.5
20	90.0	55.5	50.0
24	89.5	54.2	48.5
28	87.0	53.1	46.2
32	83.0	50.8	42.2
35	79.5	48.1	38.2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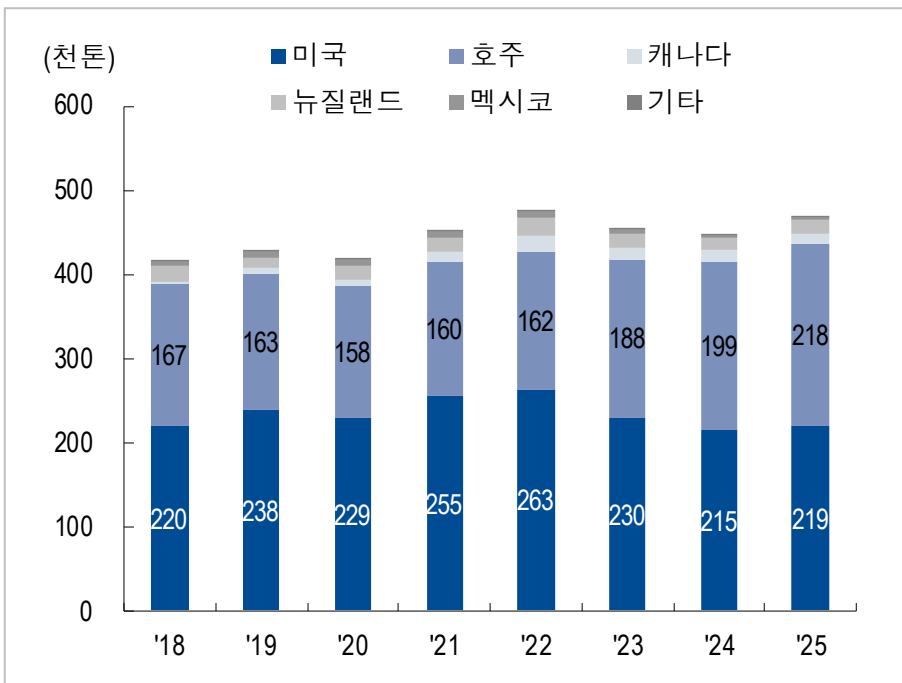
축산업 수급 영향 변수 점검: 기후, 수입

II. 수입: 수입처 다변화와 수입 확대

축산물 수입: ① 수입산 소고기는 미국산과 호주산이 대부분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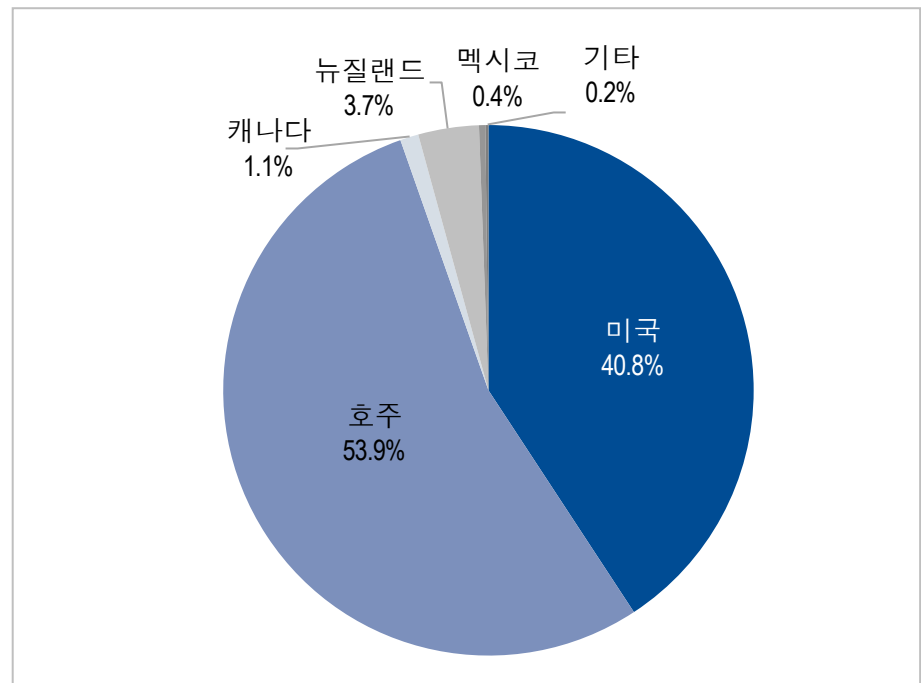
- 국내 소고기 수입은 대부분 미국 및 호주에서 이뤄지고 있어 브라질산 수입 확대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 미국 현지의 가뭄 및 도축 두수 감소로 미국산 공급 축소와 호주산 소고기 수입 확대가 맞물리면서 2025년에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수입량을 기록했고, 2026년 들어서는 호주산 수입량이 미국산 수입량을 상회

소고기 국가별 연도별 수입 추이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6년 7월 누적 소고기 국가별 수입 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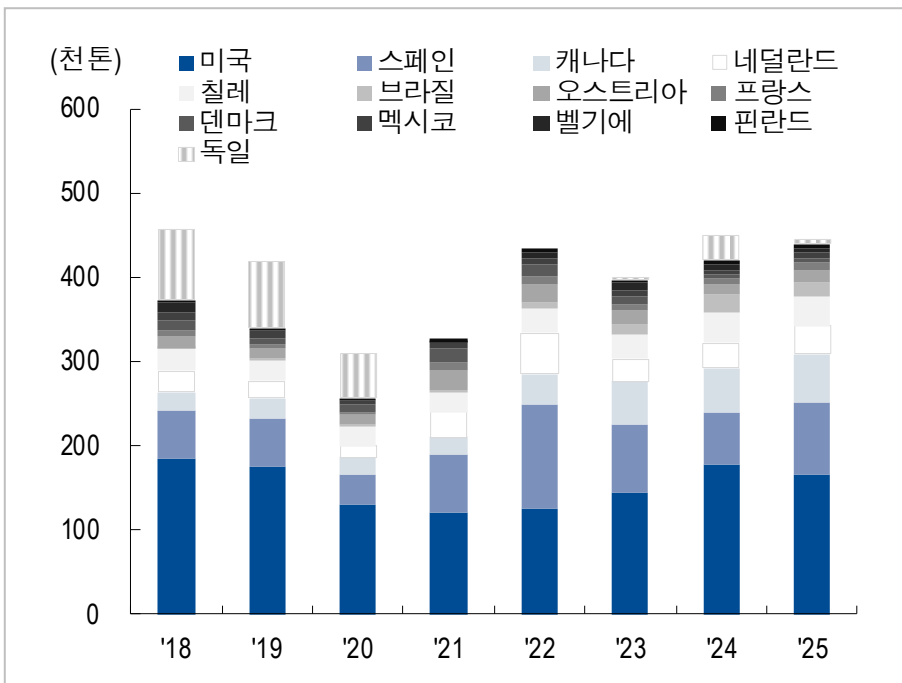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축산물 수입: ② 돼지고기는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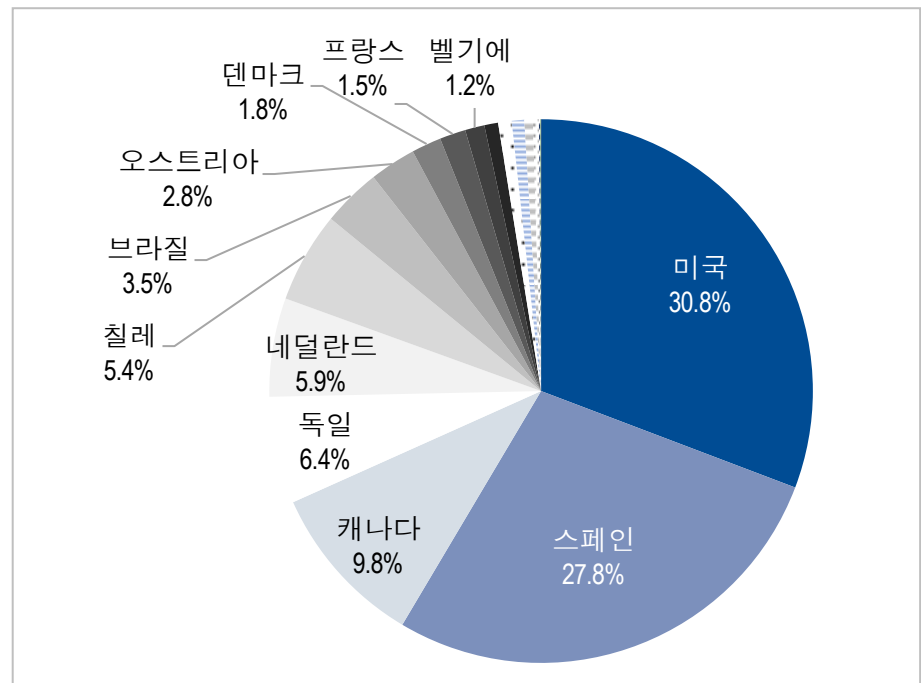
- 돼지고기는 다른 축종과 달리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 중
- 2026년 7월 누적 기준 돼지고기 수입 국가는 미국(30.8%), 스페인(27.8%), 캐나다(9.8%), 독일(6.4%), 네덜란드(5.9%), 칠레(5.4%) 등의 순이며, 브라질 수입 비중도 약 3.5%를 차지
- 2025년 연간 수입 비중과 비교하면 스페인산 및 독일산 수입 비중이 크게 확대(스페인산: ('25년) 18.8% → ('26.7월 누적) 27.8%, 독일산: ('25년) 1.0% → ('26.7월 누적) 6.4%)

돼지고기 국가별 연도별 수입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6년 7월 누적 돼지고기 국가별 수입 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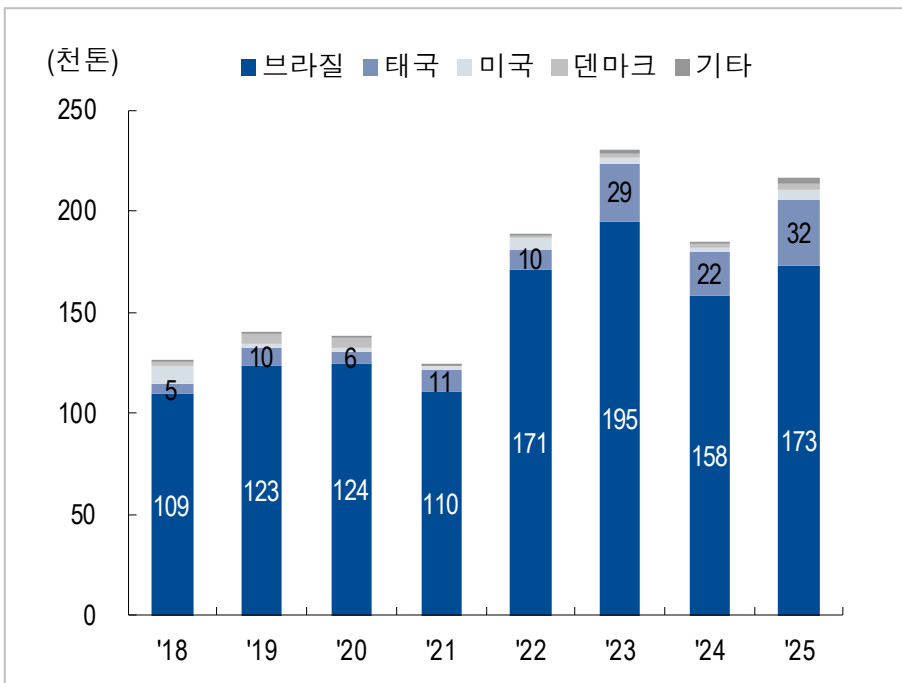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축산물 수입: ③ 수입산 닭고기는 브라질산 비중이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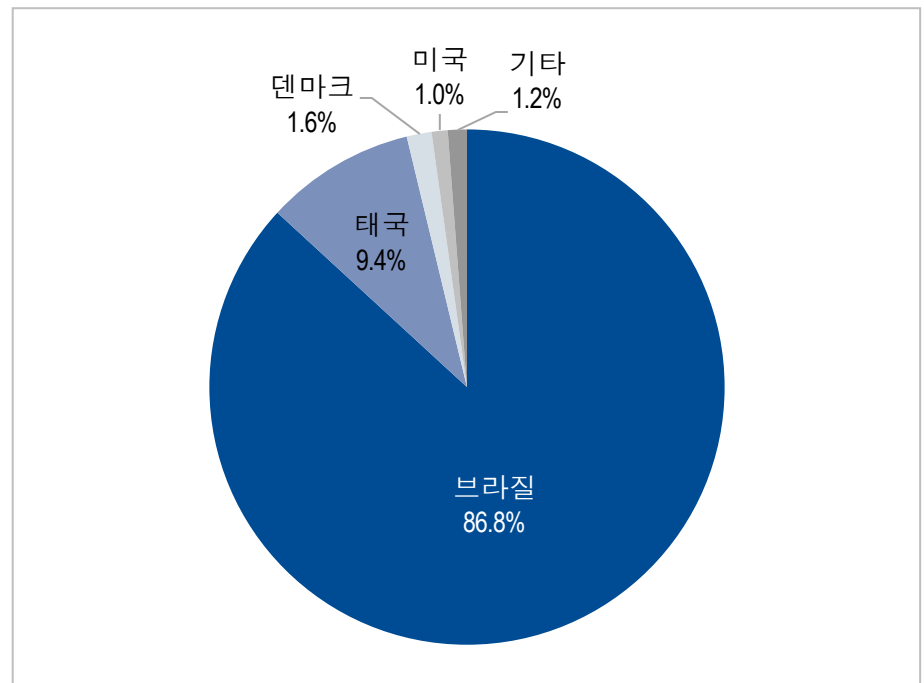
- 국내 닭고기 수입은 대부분 브라질에서 이뤄지고 있음. 2026년 7월 누적 닭고기 수입에서 브라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6.8%
- 브라질산 외 태국산 수입량이 2023년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 닭고기 공급 부족 속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무관세 수입 확대의 영향. 2025년에 재차 수입량이 늘어났는데, 이는 2025년 5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대체 수입 증가에 영향

닭고기 국가별 연도별 수입 추이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6년 7월 누적 닭고기 국가별 수입 비중 현황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소고기 수입 이슈: MERCOSUR(남미공동시장)와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

- 우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조속한 한-MERCOSUR(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한국과 브라질간 산업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
- 앞서 농업 부문은 2026년 2월 룰라 대통령의 방한 당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면서 10개 부문의 MOU를 체결하는데 포함되었음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브라질 관계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한국과 브라질간 체결된 10대 MOU와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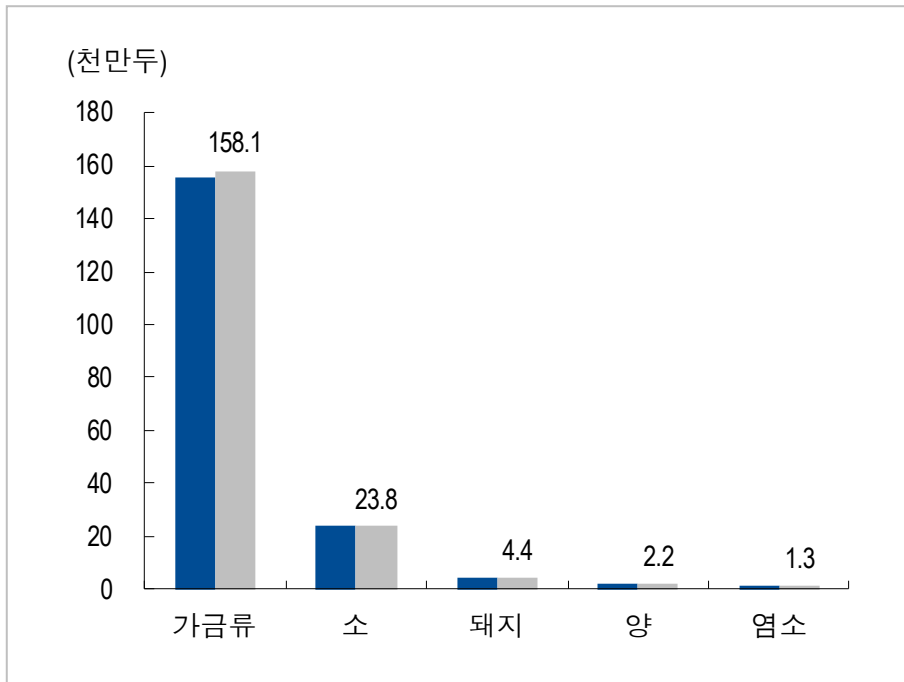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농업	• 식량 안보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전반의 교류 활성화
농업기술	• 스마트팜 등 선진 농업 기술 교류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
농약등록 절차 간소화	• 농약 및 농자재 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양국 간 무역 원활화 도모
통상·생산 통합 협약	• 핵심광물, AI·디지털, 그린·바이오 경제 협력을 위한 '고위급 경제·무역위원회' 신설
경제·금융 대화	• 한국 기획재정부와 브라질 재무부 간 차관급 협의체 신설 및 거시경제 정책 조율
보건	• 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및 의료 시스템, 보건 정책 전반의 포괄적 협력
보건 제품 규제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조화 및 정보 교환을 통한 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기업가정신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간 교류 지원,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공유
치안협력 강화	• 치안 정보 공유 및 기술 협력을 통한 국제 범죄 공동 대응 역량 강화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생우 사육국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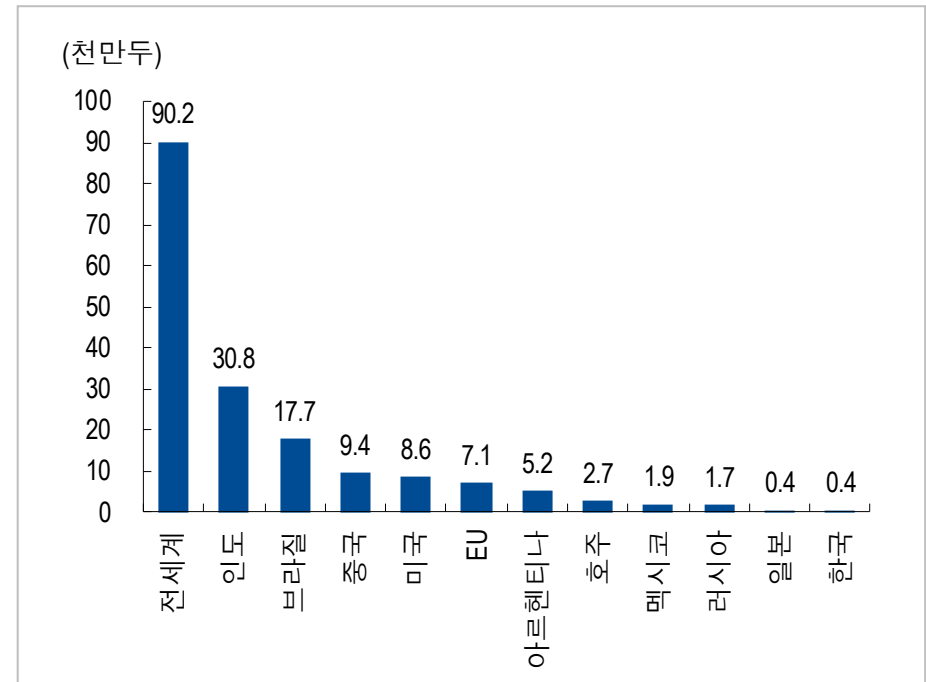
-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가축은 가금류(주로 닭)이지만 소 역시 약 2.4억두가 사육되어 두 번째로 많이 사육되는 가축의 지위를 가짐
- 브라질 현지에서도 인구 수(2.2억명) 보다 더 많은 소가 사육되고 있음을 강조
- IBGE(브라질 통계청)의 경우 전수조사(행정적 성격)에 가까운 통계로 상업용 유효 사육 두수를 중심으로 집계 및 추정하는 USDA(미 농무부) 통계와 수치는 다소 다르지만 전 세계 비교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소 사육국 중 하나임

브라질 축종별 사육 두수(2023 기준)



자료: IBG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USDA(미 농무부)의 글로벌 생우 사육두수 비교(202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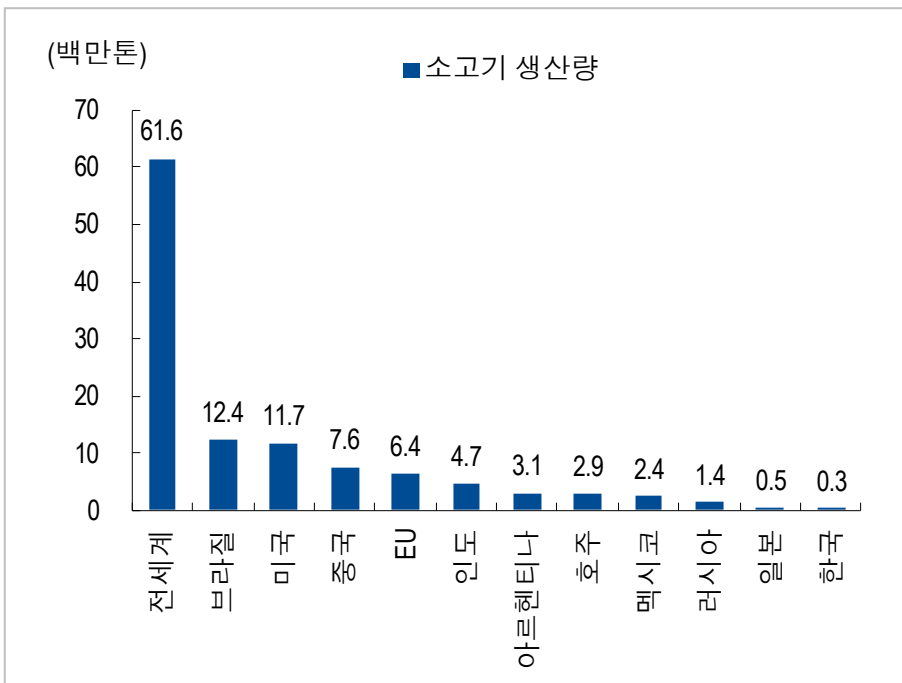


자료: USDA,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많이 사육하는 만큼 고기도 많이 생산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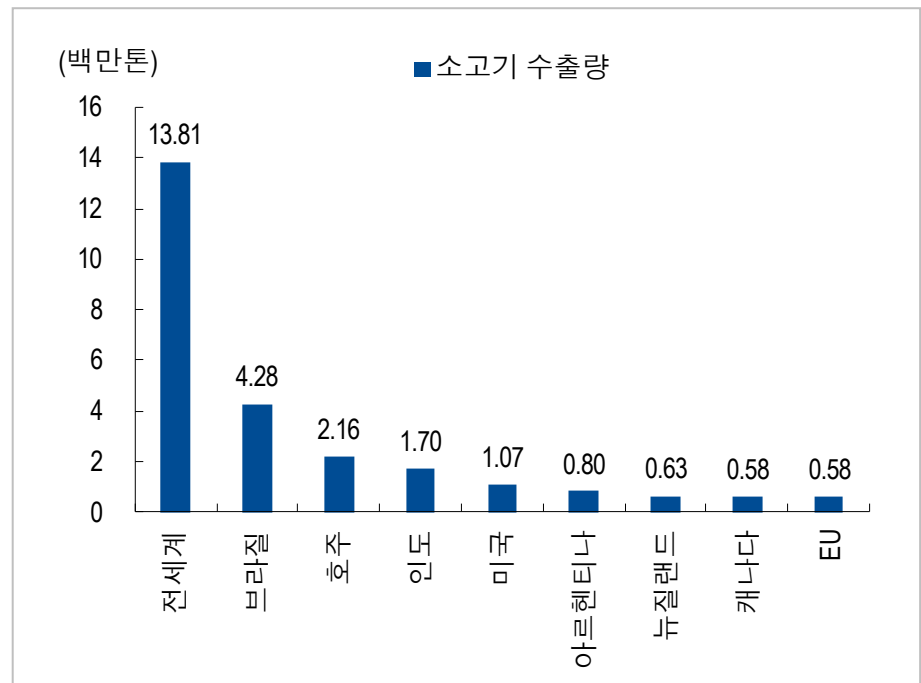
- 브라질 소고기 생산량은 연간 1,200만 톤 수준이며 전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임
- 브라질 내수시장이 800만 톤 수준의 소고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소고기가 수출되며 수출량 측면에서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전세계 및 주요국 소고기 생산량



자료: USDA,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세계 및 주요국 소고기 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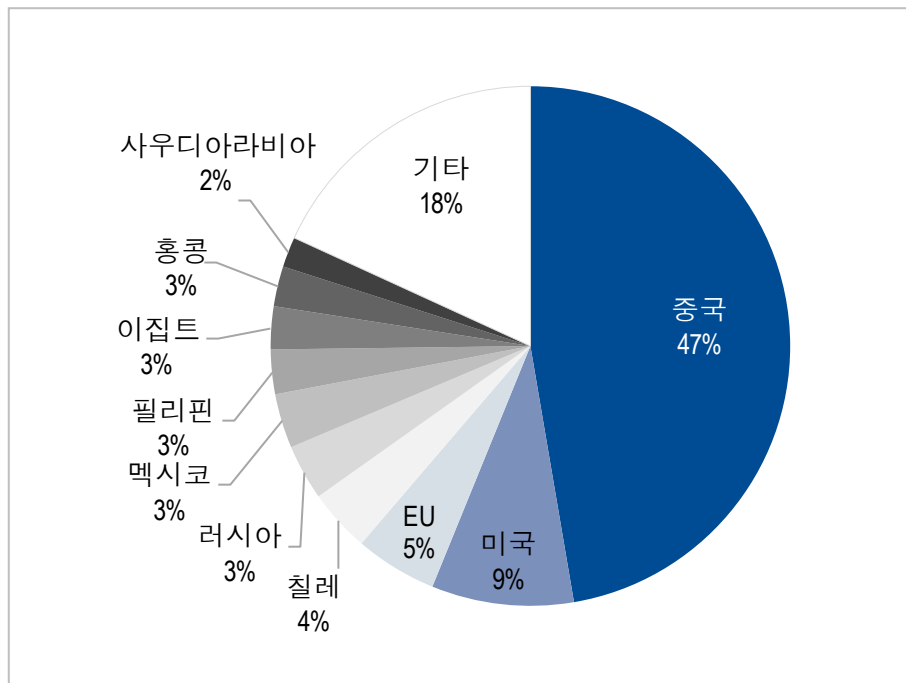


자료: USDA,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브라질 소고기 수출의 최대 수요국은 중국과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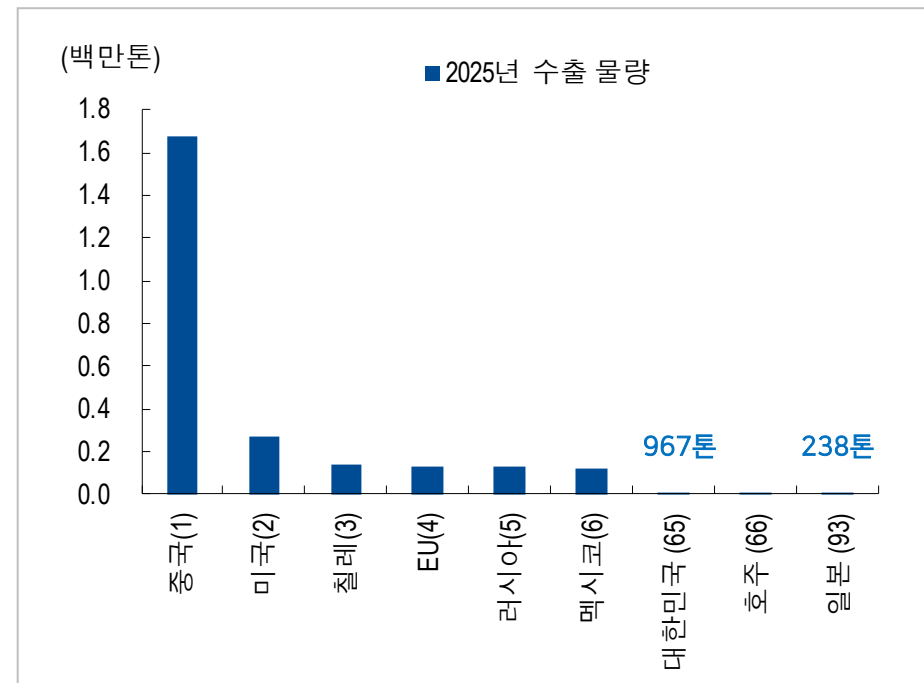
- 브라질 소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 EU 순이지만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임
- 무게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우리나라는 2025년 브라질로부터 967톤을 수입하여 브라질의 65번째 교역국

브라질 소고기 수출 국가별 비중



자료: ABIE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무게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6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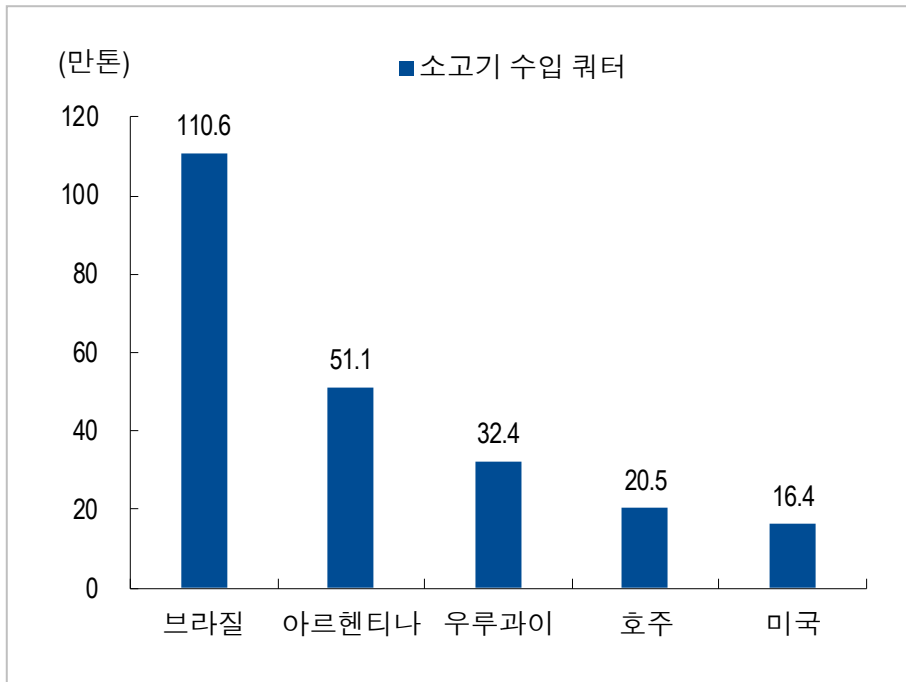


자료: ABIE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중국의 쿼터 부과는 브라질 생산자들에게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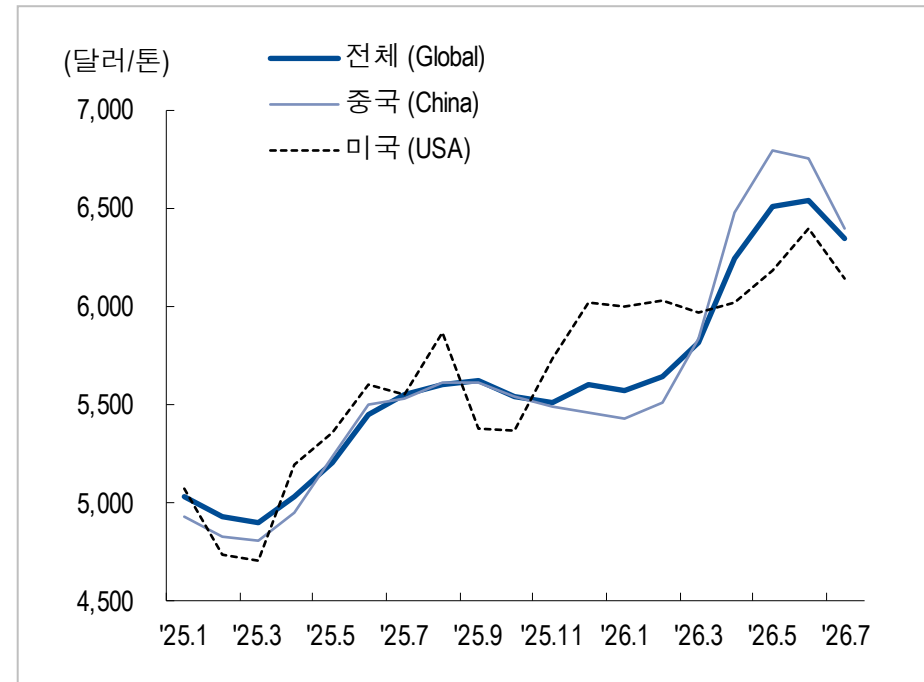
- 중국 상무부는 2026년부터 자국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소고기 수입국(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에 대해 할당량과 추가 관세제도를 설정했으며 브라질은 110만 톤을 적용받았음
- 앞서 브라질의 중국향 소고기 수출은 160만 톤을 넘어섰으므로, 110만 톤의 수입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12% 관세율에 추가로 55% 관세율이 부과되어 실질 관세율은 67%까지 높아질 예정임
- 2026년에는 이미 호주가 추가 관세 대상이 되었으며 브라질의 경우 8월 11일 기준 90% 한도에 도달한 상태

중국 상무부과 부과한 국가별 수입 쿼터



자료: 언론 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수입 물량과 단가 추이



자료: Comex Sta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EU 항생제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해 EU향 수출은 9월부터 중단

- 브라질 축산업 시장에서 EU향 소고기 수출은 전체의 4위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중요도가 높음. 그러나 EU의 항생제 규제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9월부터 수출이 금지될 것
- 2025년 성장 호르몬(oestradiol 17β; 에스트라디올 17베타)이 검출되면서 리콜이 발생했으며 비EU유럽국가들도 9월 이후 수입 중단 예정
- EU-MERCOSUR FTA가 잠정적으로 발효되었음에도 브라질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서류적 보증 절차와 추적 시스템을 입증하지 못해 수입이 제한될 예정

EU 수입 제한을 풀기 위하여 검역을 강화했으나 효과는 미지수

Brazil tightens meat inspections to avoid EU import ban

New procedures target antimicrobial rules ahead of September deadline

3 July 2026 1 minute read By: Global Ag Media
South America

Brazil's Agriculture Ministry has started to implement new inspection procedures on the production of meat and meat derivatives to address trade requirements from the European Union, [Reuters reported](#), citing Globo Rural. The local news outlet cited a government document sent to federal agriculture auditors.

Brazil seeks to prevent the EU from banning imports of some Brazilian products, including beef, poultry, eggs and live animals, starting in September.

The ban, announced in May, is linked to EU rules restricting the use of certain antimicrobial substances in food-producing animals.

Brazil's Agriculture Ministry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Reuters' request for comment.

브라질 정부의 국가 소 및 버팔로 식별 계획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2025)	• 시스템 개발 및 기준 수립 - 공급망 내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적용할 기술과 방법론을 정의. 또한 주 정부의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국가 정보 보안 표준을 설정하는 단계
2단계 (2026년)	• 시스템 연동 및 통합 - 표준화되고 안전한 API를 개발하여, 각 주(State)별 방역 시스템이 국가 이력추적 시스템과 원활하게 데이터를 연동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조정
3단계 (2027년~2029년)	• 현장 적용 및 식별 개시 -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정기적인 가축 위생 관리 시기나 자발적인 민간 참여 프로토콜의 범위 내에서 소와 버팔로의 개별 식별(이표 부착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
4단계 (2030년~2032년)	• 전면 의무화 시행 - 가축의 연령이나 이동 목적에 관계없이, 브라질 영토 내에서 가축이 최초로 이동(이송)하기 전에 반드시 개별 식별을 완료하도록 의무화를 전면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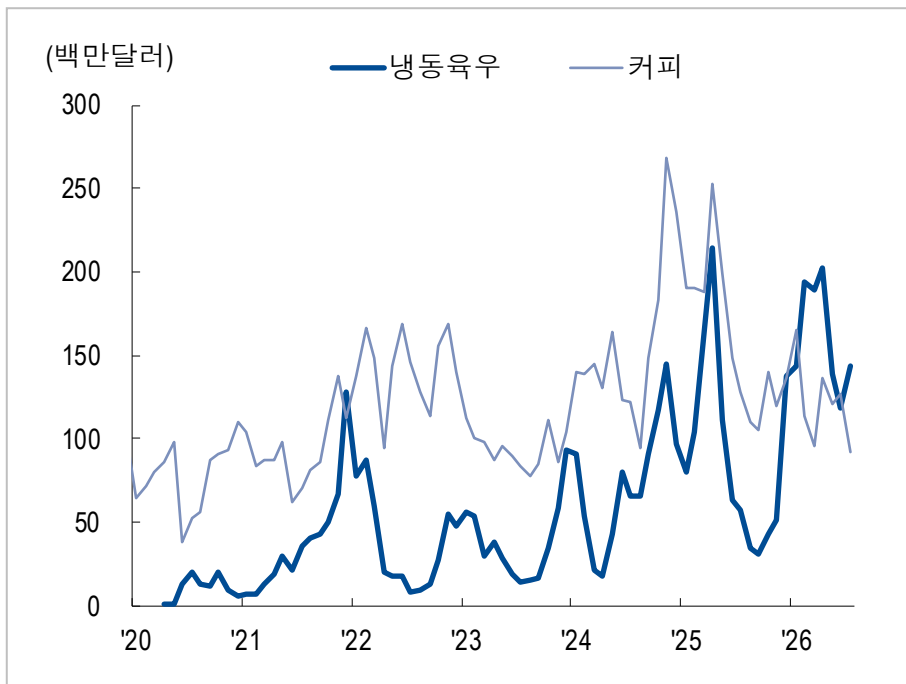
자료: ABIE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thepigsite.com,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향 수출은 관세 충격에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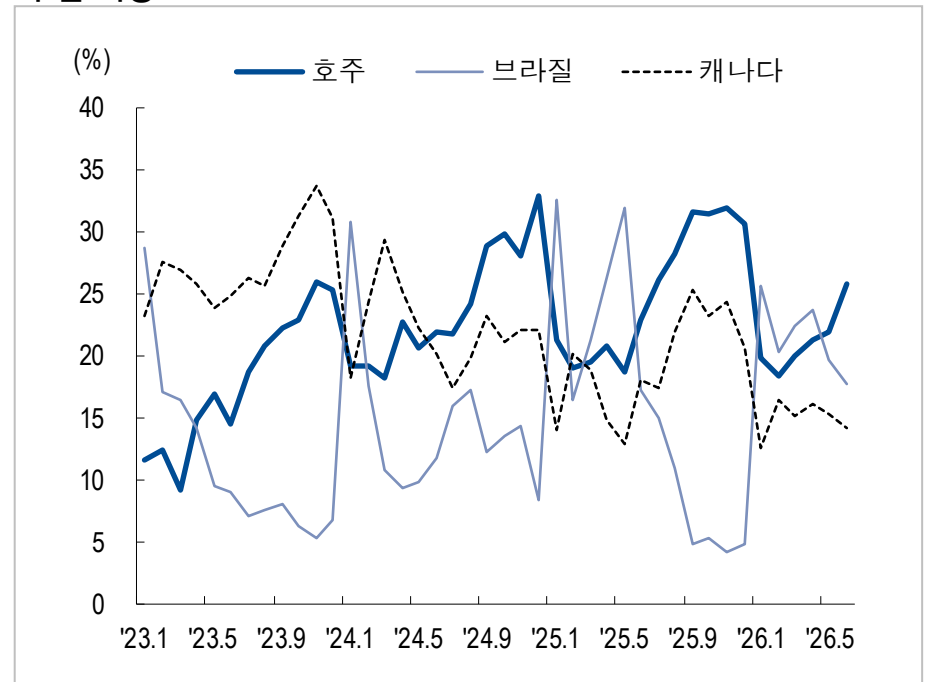
- 미국은 브라질산 소고기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연간 30만 톤 가까운 물량을 수입
- 2025년 관세 부과 당시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은 급감했으나, 미국 내 물가 부담으로 관세가 철회되면서 기존 비중인 약 20% 내외를 대체로 회복한 상황
- 7월 미 행정부는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소고기와 커피 등은 제외되었으며, 8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분쇄육용 소고기 30만 톤을 한도로 90일간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 바 있음

2025년 관세 부과 이후 급감했던 냉동육우 수출 규모 회복



자료: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25년 관세 이슈 해소 이후 회복된 미국의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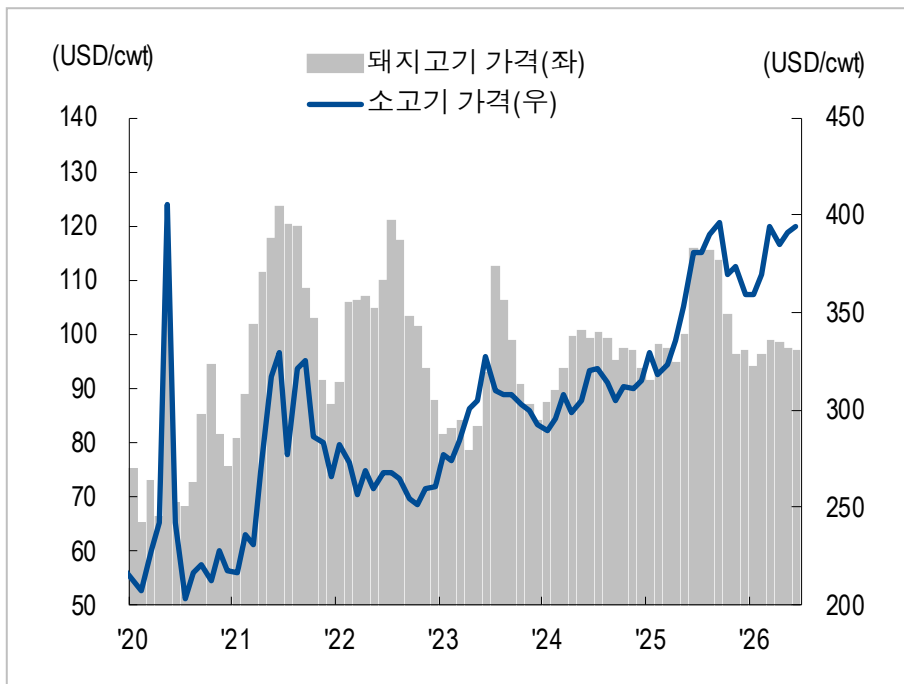


자료: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은 자국 물가 안정을 위해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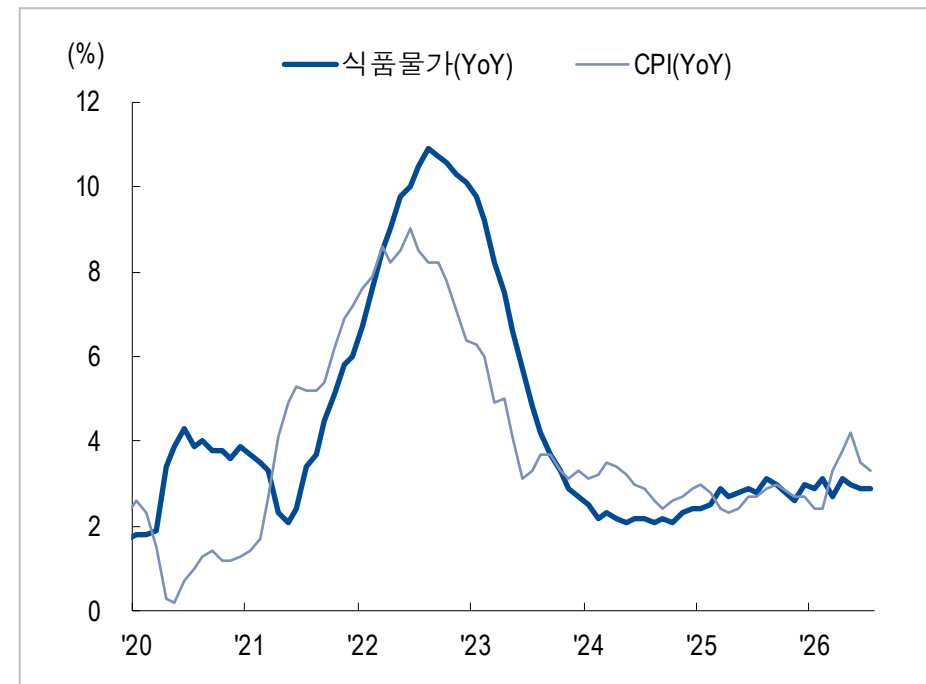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브라질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 제외 결정은 자국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것임
- 실제로 2025년에도 미국 내 소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관세가 철회된 바 있으며 높은 수준의 소고기 가격이 유지되자 새로운 관세에서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식품물가의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미국 현지 소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 추이



자료: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물가 목표(2%)를 상회하는 식품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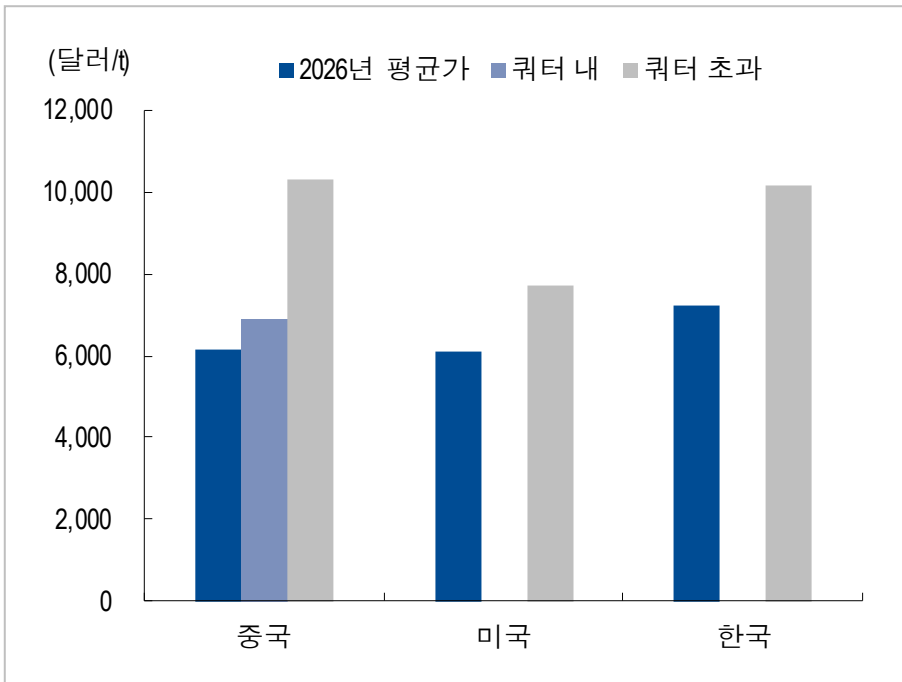


자료: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한국향 수출은 브라질의 수출처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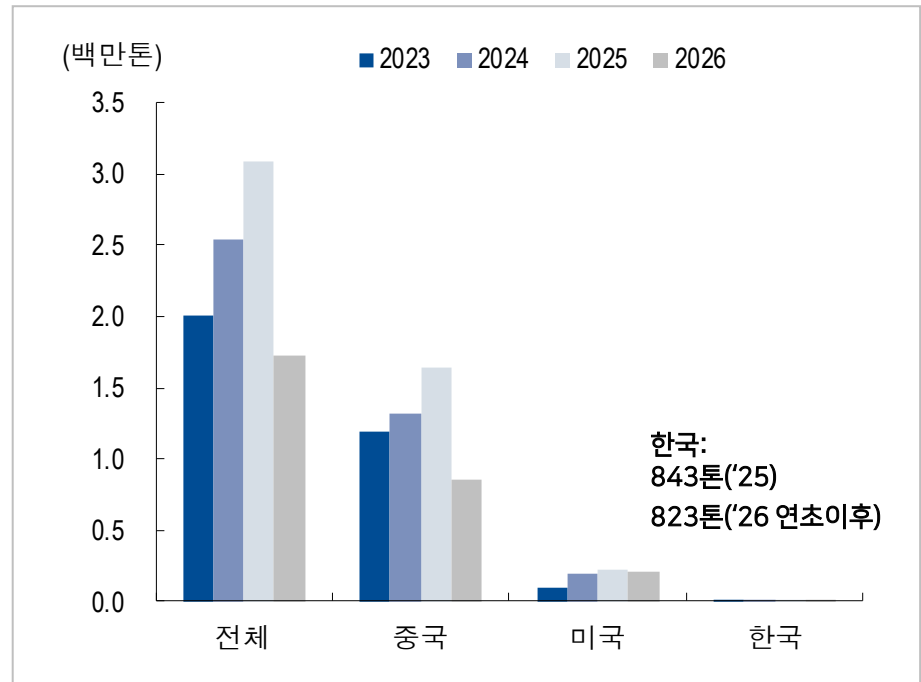
- 미국의 자국 사정으로 인한 관세 유예는 중국향 수출에 부과될 관세 수입으로 인한 물량 감소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호재
- 그러나 중국향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 시스템은 적어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면세 조치는 재적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브라질 수출 업체들은 새로운 수출처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
- 아직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량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특수 목적용 물량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브라질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로의 수출도 검토할 것

관세 부과 이후 중국향 가격 급등할 전망



자료: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아직 국내 수입 물량은 많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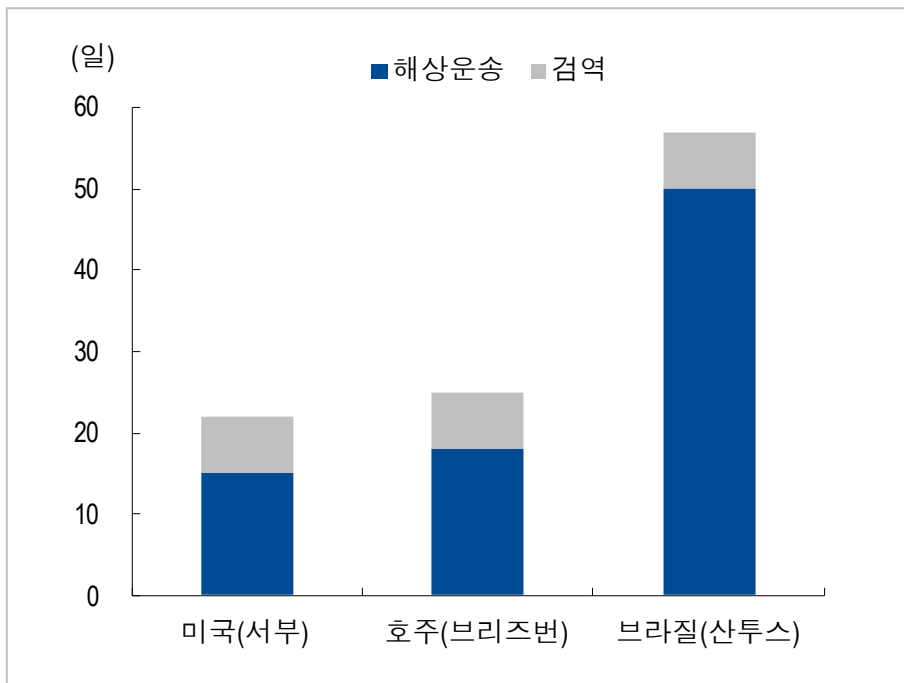


자료: Comex Sta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국내 수입시 냉장육 보다는 냉동육 중심일 가능성이 높음

- 곡물 비육을 통해 마블링이 풍부한 육질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에는 브라질 소고기는 다소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음
- 방목형 브라질산 소고기는 질기고 향이 있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냉장육 보다는 냉동육의 형태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산과 호주산에 비해서 유통기간이 길어 재고관리에 취약



주: 일반적인 운항 속도 기준이며 검역은 7일 소요를 일괄적으로 가정한 수치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브라질에서는 슈하스코용 피하지방이 두꺼운 고기를 선호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근간지방이 촘촘한 고기를 선호



자료: LF,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브라질의 등급제 및 고기 분류 방식은 우리나라와 다름

- 브라질 육류 산업의 핵심은 '곡물 비육을 통한 마블링'이 아닌 '목초 방목을 통한 대량 살코기 생산'
-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도축 시 도체를 분류할 때 마블링 보다는 연령(영구치 개수), 성별(거세/비거세우/암소), 체중, 외관 지방 두께(피하지방 피복도) 위주로 판정
-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지는 등급 라벨은 정부 차원이라기 보다는 대형 패커(JBS, Marfrig 등)나 품종 협회의 자체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로 운영

소 도체 분류에 사용하는 피하지방 피복도 기준표



주: 브라질 현지에서 가장 선호하는 도체는 3~4단계(Mediana ~ Uniforme)

자료: Pastagem e Ciência,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JBS에서 고급 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1953 Frib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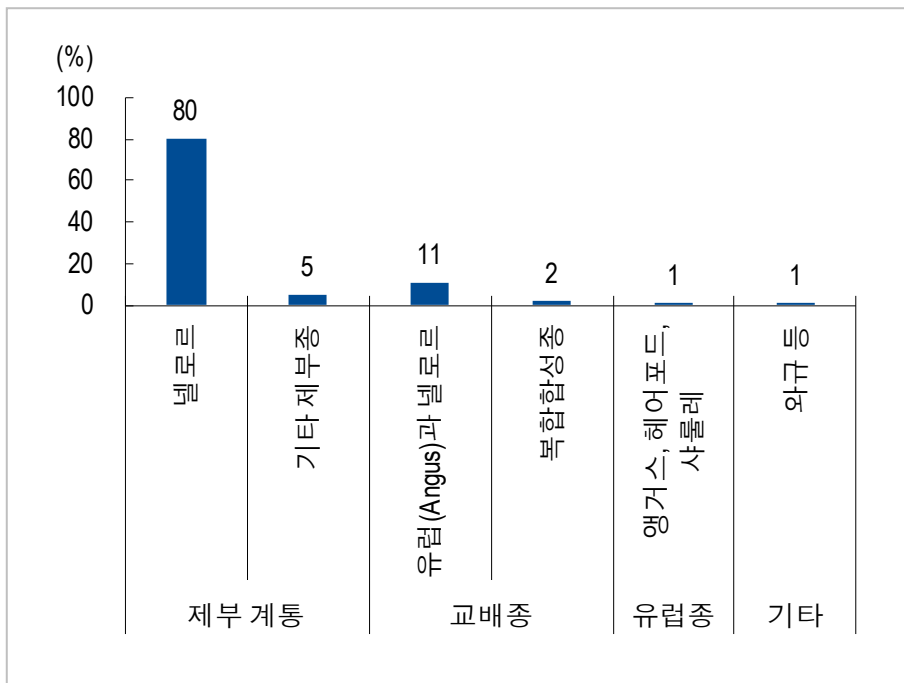


자료: JBS Brasil,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브라질에서 주로 사육되는 소는 제부(Zebu)계통의 흑우 '넬로르'

- 브라질에서 주로 사육되는 품종은 제부(Zebu) 계통의 흑우 '넬로르(Nelore)'종과 기타 제부종. 제부 계통의 소는 브라질 사육두수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럽(주로 Angus)와 넬로르의 교배종을 합치면 96%정도에 도달
- 우리나라에서 선호되는 와규와 같은 종류의 소는 1% 미만으로 비율이 크지 않음

브라질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의 비율



자료: Embrapa(브라질농축산연구청),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흑이 달려 있는 넬로르 종의 소가 브라질에서 사육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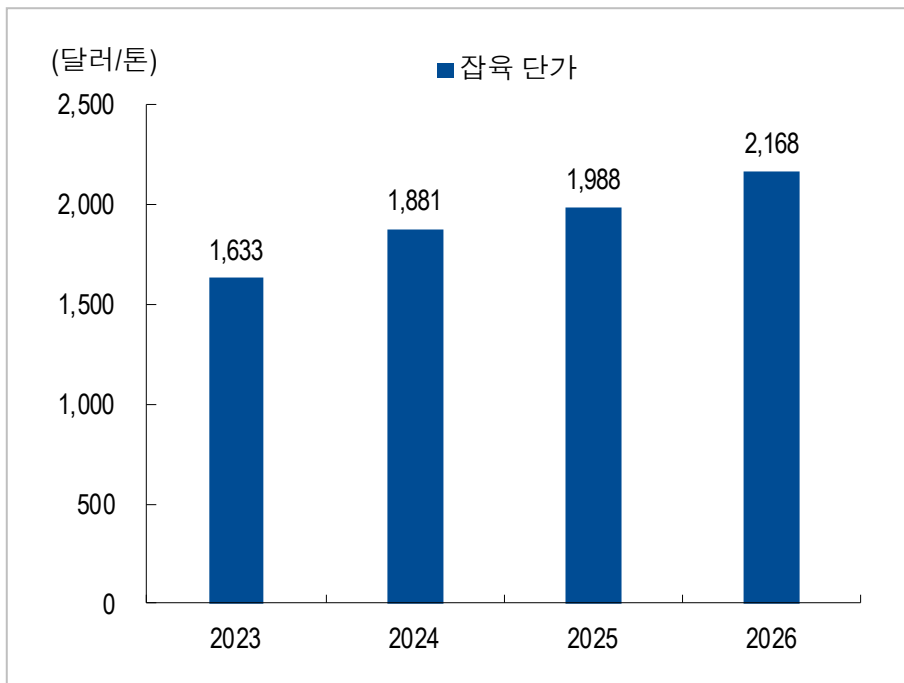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수입된 냉동육은 B2C 보다는 B2B 채널로 공급, 돈육과 경쟁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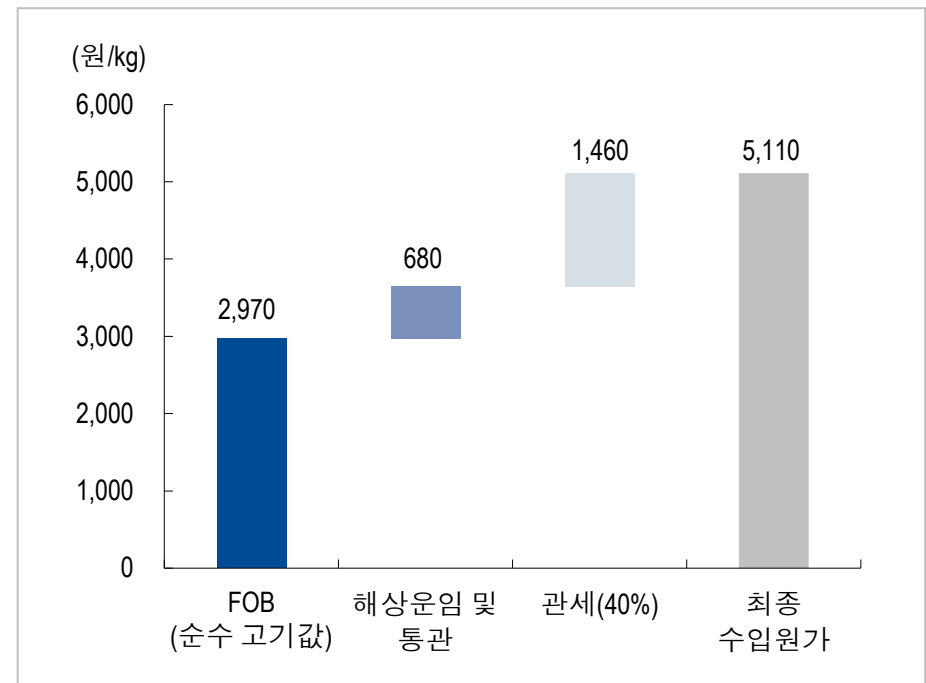
- 수입된 냉동육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고려했을 때 B2C 보다는 B2B 채널(육가공 업체, 단체급식, 외식업체 등)을 통해 공급될 가능성을 예상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소고기 단가는 톤당 7,000달러 수준(정식 수입 이전)이지만 잡육 단가와 운임 등을 고려했을 때 kg당 5,000원에서 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 저렴한 가격은 기존 소고기 채널의 경쟁 보다는 돈육 또는 계육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

브라질 수출 잡육 단가 추이



주: '02062990' (잡육/부산물) 코드로 검색
자료: Comex Sta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국내 도입시 원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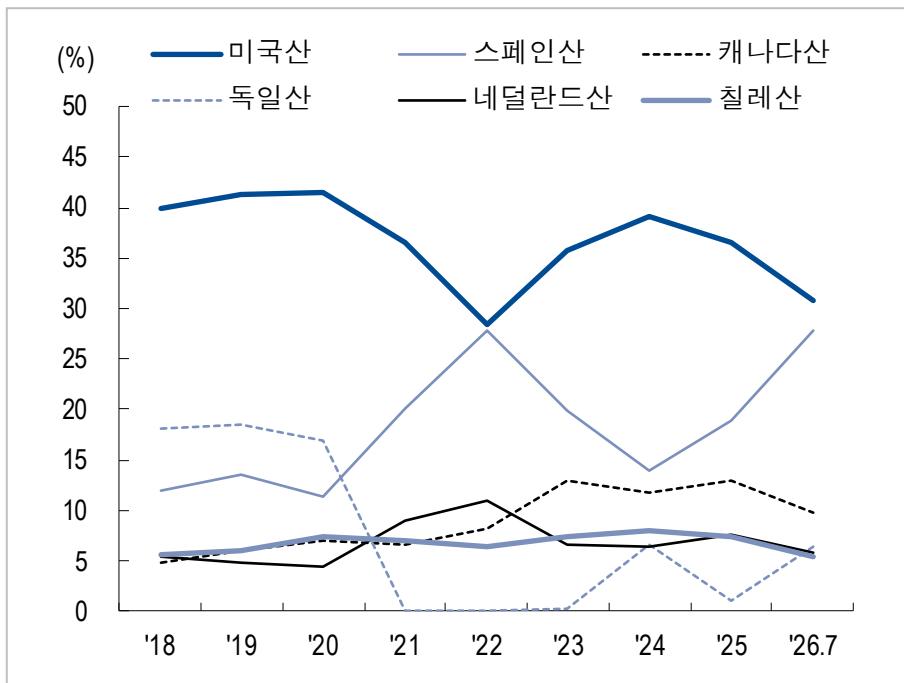


주: 톤당 2,200달러 기준으로 1,350원 환율 조건하에서 해상운임은 kg당 0.5달러 가정을 반영한 것으로
조건 변화에 따라서 전체 수치는 변동 가능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돼지고기 수입 이슈: 2026년에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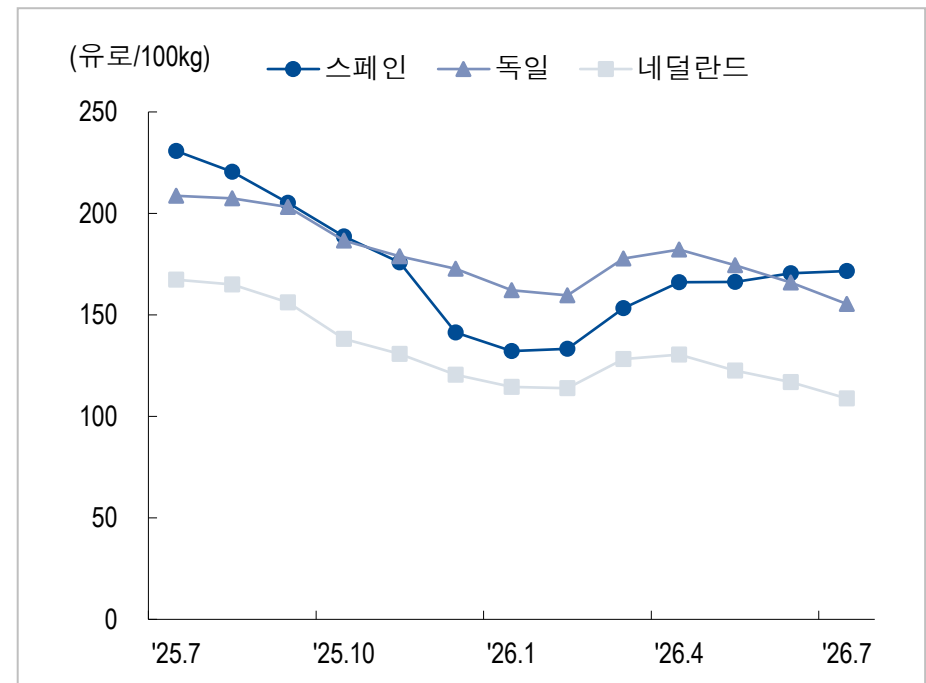
- 2026년 들어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 비중 확대되었으나, 최근 가격 추이 감안할 때 독일, 네덜란드 등의 수입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 존재
- 2025년 말 스페인 ASF 발생으로 일본·필리핀 등이 수입을 제한하면서 수입이 가능한 한국으로 수출 물량이 집중된 영향
- 국내는 ASF 발생지역에 한해 수입을 제한하는 '지역화(regionalization)'를 인정, 비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 지속
- 수출시장 축소로 스페인 내 공급이 늘며 현지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점도 상반기 국내 수입 확대를 뒷받침

돼지고기 수입 국가별 비중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돼지고기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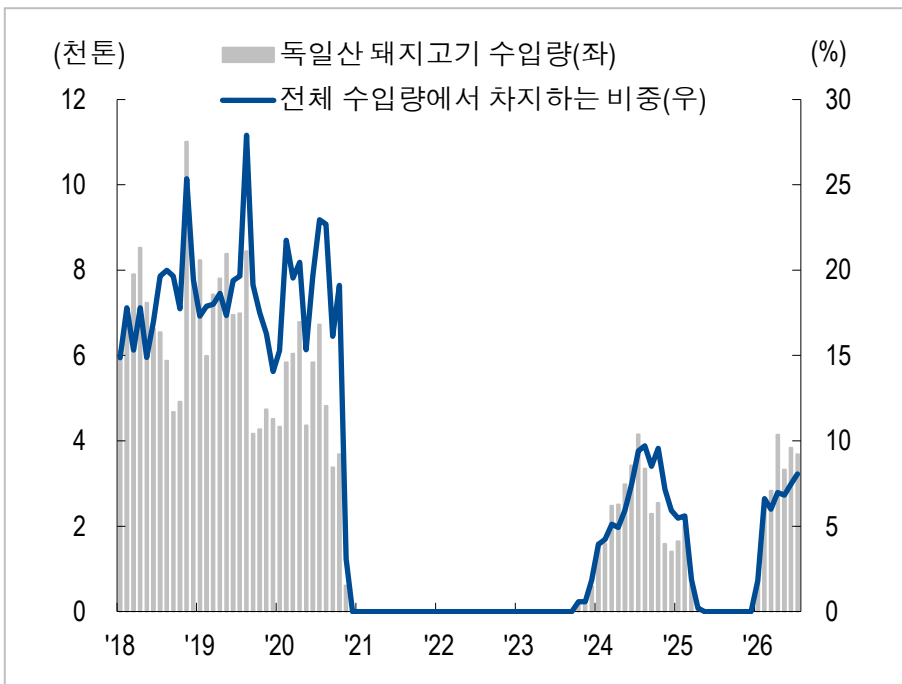
주: Grade S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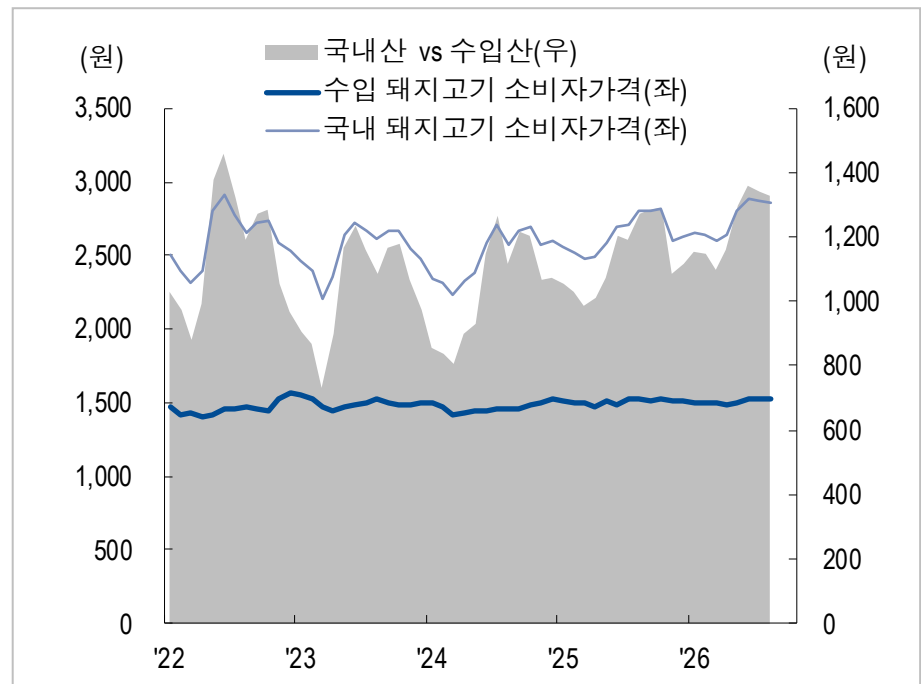
- 2026년 들어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도 증가. 2025년 구제역(FMD) 발생으로 중단됐던 수입이 재개된 영향
-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일산 돼지고기의 낮은 가격은 수입 수요 확대에 영향
- 독일 수입이 제한되기 전 국내 수입 비중이 2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 및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국내산 및 수입산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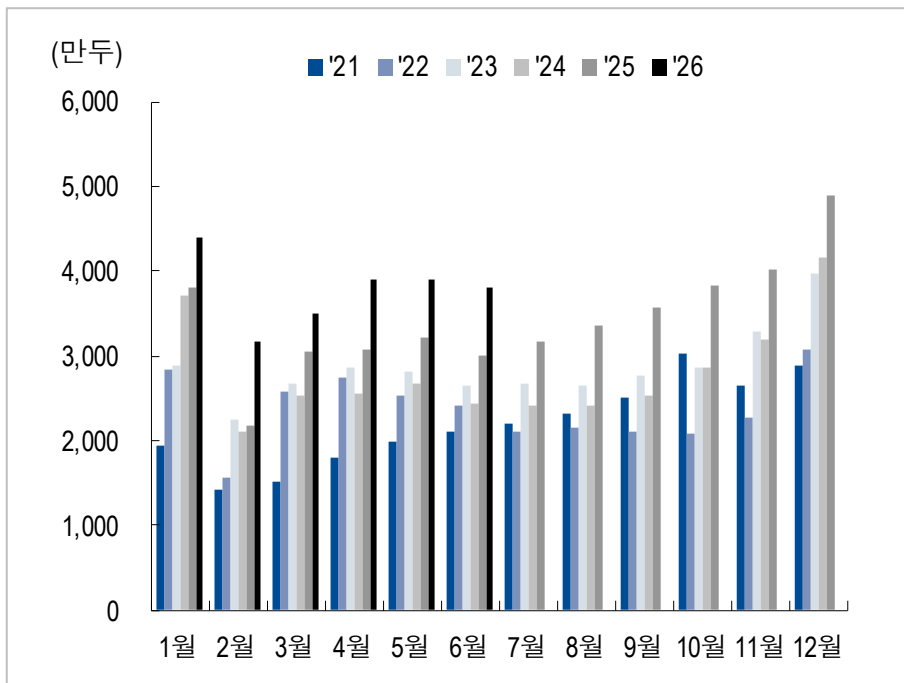


주: 국내산은 삼겹살, 수입산은 삼겹살(냉동) 기준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중국 내부 공급량이 많은 점은 유럽산 돼지고기의 한국향 확대 가능성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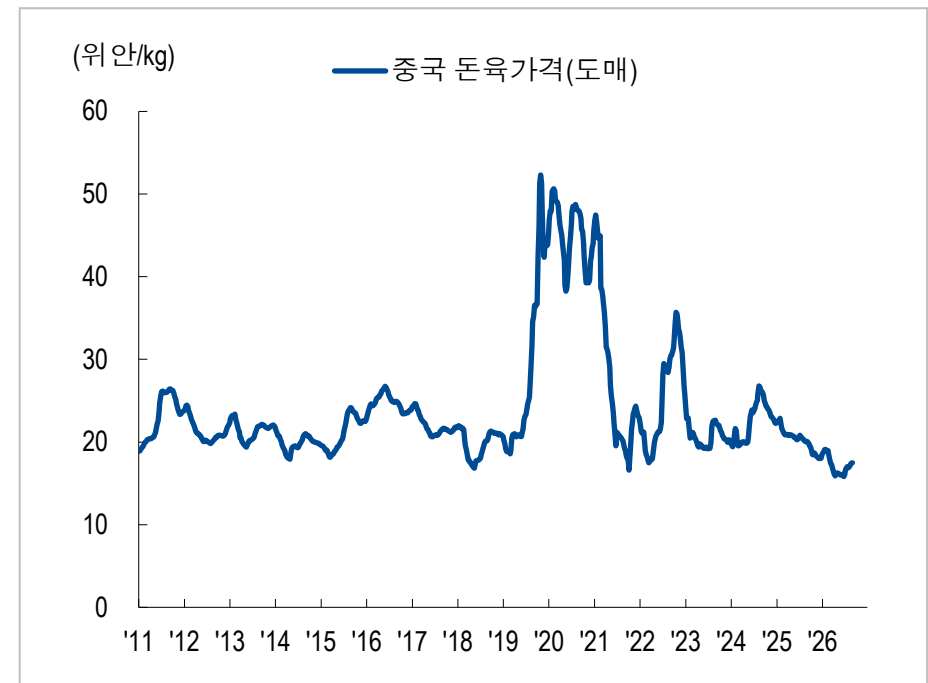
- 2025년 3월 이후 중국의 돼지 도축두수는 전년동월대비 20% 이상 증가세가 이어지며 내부 공급량이 많은 상황
- 이는 제한적인 수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산 돼지고기의 한국향 확대 가능성으로 작용

2026년에도 중국 내 돼지 도축두수는 과거 대비 높은 수준 지속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중국 돈육가격은 낮은 수준 지속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당사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